

핸드폰

핸드폰,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정보와 비밀 사이의 딜레마.....

각본 김 서 현
감독/각색 김 한 민

- 등장인물 -

오승민 (남. 30대 중반)

연예인 매니저.

생존 본능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이다.

최근 고생 끝에 자신이 키운 여배우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중이다.

부쩍 소원해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중이나 여의치 않은데...

정이규 (남. 20대 후반)

할인 마트 고객 센터 주임.

책임감이 강하고 친절함 성격으로 회사에서 신임을 얻고 있다.

고객들에게 시달리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괴감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어디론가 탈출구를 모색하려 애쓰는 중이다.

김정연 (여. 30대 초반) 승민의 아내

김대진 (남. 20대 중반) 승민의 매니지먼트 로드 매니저

송기택 승민의 20년 지기 친구. 방송국 음향감독

최사장 (40대 후반) 사채업자

윤진아 (여. 20대 중반) 승민이 정성을 들이고 있는 여배우

한준수 (남. 30대 후반) 정연의 대학 선배. 변호사

그 밖에 중년 약사, 윤호, 추리닝, 마트 동료 1.2.3, 형사, 등등

화면 무지 상태 - 핸드폰 [▽hand phone]

[명사]<통신>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정보와 비밀 사이의 딜레마....

사전적 의미 뜨고, 무지 상태 그대로 사람들의 핸드폰 통화소리 들린다.

- 여보세요? 나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답답해 죽는 줄 알았잖아?
- 야! 문자 하나 보내면 다야? 죽이든 밥이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냐?
- 자, 잠깐만! 전화 왔거든... 끊지 말고 기다려!
- 야! 그뻘한테 전화왔다. 어? 이거 뭐야? 안 넘어갔어?
- 너 거기 어디야! 발신자 추적 딱 걸렸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화면 차츰 밝아지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무궁화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위로 다시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각기 다른 톤의 음성들이 뒤섞여 푹푹 끊겨 들려온다. 그러다 화면, 인공위성으로 접근, 내부 단말기쪽 무수히 깜빡이는 광신호쪽을 타고 들어가며,

타이틀 **핸드폰** 뜨고...

다시 무지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한 남자의 목소리....
쿵쾅쿵쾅 음악소리 배경으로 들리고...

1. 룬싸롱 복도. (안.밤)

화면 밝아지면, 수화기 구멍 극 클로즈업에서 천천히 빠져나오면 핸드폰을 받고 있는 한 남자(승민)...

승민 네? 아, 아니요. 그렇게 까지는 처리하실 필요가... 네, 그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요? 아! 그건 제가 찍어둔 게 있거든요. 바로 핸드폰으로 썩 드릴게요. 아! 다른 번호를 사용하신다구요?
예...불러주시면 (자신의 명함을 꺼내 적고) 그럼 금액 문제만 어떻게 잘 좀...
예...잘 부탁드립니다.

길게 뻗은 럭셔리한 복도...
쿵쾅쿵쾅! 복도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와 반주음악으로 보아 룬싸롱이다.
짧은 치마의 언니들 빠르게 방들로 이동하고, 승민은 사진 전송을 하고 있다.
승민, 전송이 끝나자마자 황급히 룬으로 들어간다.

“♪~짜짜라 짜라짜라 찻찻짜아~ 당신이 부르면 달려 갈 거야~♪”

룬 안... 테이블 위에 가득한 술병들.
일단의 남자들(피디들과 기자 몇몇)이 언니들 끼고 춤추고, 몸 더듬고 난장판.

무대에선 거나하게 취했지만 노래를 제법 불러대는 최PD(남. 40대 초반).
반주타임...승민, 조심히 문을 닫고 장단을 맞춰주며 자리 찾아가는데,
최PD가 승민을 낚아챈다.

최PD 아이 씨발! 김빠지게 어딜 자꾸 왔다 갔다 해? 진짜 이러면 국물도 없어!
승민 에이~

CUT TO

승민, 마이크를 부여잡고 테이블 위로 올라간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지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위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신 뒤 공중에 뿌려 샤워 쇼를 연출하고
젖은 머리카락으로 분위기를 잡으며 슬로우 모션으로 섹스하는 재롱까지,
사람들 반응이 괜찮다. 몇몇 언니들과 남자들까지 테이블 위로...
승민, 섹시한 포즈로 한 남자(박피디)에게 다가가 느끼하게 명함 꽂아주고,

승민 언제든 불러줘 ~ 무조건!! 무조건이~야아!!

“아이 새끼! 저거 저거” 이를 보고 졌다는 듯 혀를 내두르는 최PD...
승민, 이번엔 느끼하게 눈까지 찡긋거리며 최피디에게 접근...
최피디, 헛웃음... 다시 분위기는 난장판 속으로....

2. 단란주점 현관 앞 (밤/밖)

주점 밖으로 나가는 남자들에게 꼬박꼬박 인사를 하는 승민.

승민 진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나가는 피디 중에 한 명에게 더욱 반색이 되어 다가가는 승민.

승민 박피디님! 오늘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드라마 보다 울긴 대가리 털 나고 처음이었잖습니까.
꽃바람 연출하신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다니! 하~아!

박피디 (심드렁) 바람꽃인데.

승민 (!!) 뭐 얹어치나 매치나... (꾸벅 인사)
조만간 한번 찾아뵙는 영광을 주십시오. 식사라도 한번 꼭...

박피디 그럼시다. 잘 놀데...

승민 에이~ 뭘요. (90도로 다시 깎듯하게 인사하는) 감사합니다!

기자들 (인상, 중얼) 씨부럴! 우린 찬밥이네.

승민 (반색) 아이고! 무슨 그런 흥직한 말씀을.... 우리 기자님들은 더욱! 특별히! 따로!

다시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살피 가십시오!

심드렁 사라지는 기자들...

인사하는 승민 뒤로 양복 자켓 단추를 채우며 최피디가 다가온다.

최피디 오늘 괜히 오랬나?

승민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몸 풀구 좋잖아요. 이번 미니 준비는 잘 되시죠?

최피디 (슬쩍 친한 척) 내 괜히 오대표를 불렀겠어?

승민 (반색) 아이고! 최피디님! 드라마 대박날 일만 남았습니다.

불초소생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최피디 (웃으며) 알았어. (나가며 손을 들어 전화하는 시늉) 내 전화할게.

승민 (애교를 부리는) 언제든 불러줘 ~ 무조건!! 무조건이~야아!!

눈썹을 휘날리며 뛰어가겠습니다!!

웃으며 나가는 최피디를 마지막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는 승민,

열은 한숨과 함께 계산대 앞으로 다가간다.

마담,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미소를 지어 보인다.

마담 (계산서를 훑으며) 오늘 좀 드셨네. 사백 팔십!

승민 (스스) 드럽게들 쳐드세요, 정말. (카드 내밀며) 반까이 해.

마담 안 돼. (미소 짓는) 사백에 맞춰줄게.

승민 삼백!

마담 (여전히 미소) 삼백 오십!

승민 삼백이십오!

3. 룬싸롱 지하 주차장 (밤/밖)

승민, 차를 대 놓은 곳으로 오면서 호주머니를 뒤적이다.

차 키를 찾으려 바지, 윗도리, 안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아차!

열쇠를 또!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대고 안을 살펴보는 승민,

자동차 키는 시동 구멍에 걸려 있다.

승민, 익숙한 듯 카악- 가레를 돋워 침을 빨고는 넥타이핀을 뽑는다.

핀을 펴 차 열쇠 구멍에 넣고 비트는 승민.

찰칵- 열리는 차문. 씨익 웃는 승민, 이내 표정 굳어진다.

차 유리 창 너머로 다가오는 그림자 하나.

CUT TO

차 시동소리.. 툼툼툼... 근데 운전석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화면 이동하면 뚜껑 열린 본네트에 널려있는 옷들...
차 밑으로 뺨스 차림으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승민이 보인다.
최사장(남. 40대 후반)이 가까이 다가온다.

최사장 (밝고 친근한) 사랑하는 오대표님, 시방 룬싸롱에서 술 퍼마실 땐가요? 예?
승민 아니, 사업상 그렇게 된거지...
최사장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내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씨발아?
승민 아이~ 씨! 갚는다는까! 꼭 갚어요!! 조만간 드라마 찍구, CF 계약도 하면...
최사장 또! 또! 그 놈의 계약.

최사장, 승민의 뺨을 퍽- 얼굴을 감싸며 순간 발끈하는 승민.

승민 에이 씨, 얼굴은 때리지 마라. 얼굴은....
최사장 어쭈? 요,요 새끼 말 짧아지는 거 좀 보소이.
승민 아니, 얼굴로 먹고 사는 놈, 얼굴을 망가뜨리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
최사장 하- 새끼, 입은 살아가지고. 야! 뭐해! 빨랑 갖고 와.

최사장의 푼마니, 차 밧데리에 연결된 점프기를 들고 걸어온다.
팍!팍! 스파크가 이는 점프기.

승민 (다소 당황) 아! 갚는다니까! 씨발! 한달만 더 줘요, 한달?
최사장 하! 이새끼, 동배짱이네. 하루도 시원함을 판에 한달을 더 달라고?
승민 (좀더 애절하게) 그 정도는 더 주셔야 정말 갚죠. 이번엔 정말입니다.
에? 저 정말 못 믿으시겠어요?
최사장 (빠금히 쳐다보기만)...
승민 윤진아 뜨는 거 초치기란 말예요, 초치기!

최사장, 다짜고짜 점프선 한쪽을 승민의 헛바닥에 꽂는다.

승민 에~에~ 진짜! 한번만 믿어보라니깐!

승민, 몸부림치고, 최사장 나머지 한쪽 점프기를 헛바닥을 향해
꽂을락 말락.... 승민, 땀 뺨질뺨질..
최사장, 결국 꽂는다!

승민 (몸부림) 아악!

팍! 스파크가... 일어나야 되나, 일지 않는다.

최사장 뭐야!
푼마니 줄이 짧아서요. (줄이 빠졌다) 좀 멍기셔야 갚는데요.

최사장, 승민을 뺨겨보지만 죽어라 버티는 승민...
똥마니까지 합세해서 승민을 뺨기는데,

(목소리) 거기, 뭐하는 거요!

최사장 당황, 돌아보면 주차 관리인이 멀찍이 서있다.

최사장 아! 차 밧데리가 나가서... 쫘프시키면 될 거 같습니다. 일보세요...

관리인, 계속 랜턴만 비추며 안가고 버티고 서있다.

최사장 (어쩔 수 없이) 하! 고새끼 고거 운 좋아. (멈추며) 좋아... 내 니 말 믿고
보름 더 준다. 보름! 대신 그때 안 갚으면...

승민 앞에 던져지는 사진 한 장... 보면 여자의 사진... 아내 정연의 얼굴이다.
승민, 적의에 찬 시선으로 최사장을 노려본다.

승민 에이씨~ 아내는 빼 주라. 내가 다 갚는다니...

퍽- 승민의 가슴으로 사정없이 들어오는 최사장의 구둣발.

최사장 그렇게 애지중지 할 거면 잘 알아서 하고! 씨발아!
그리고 너 말짱게 하지마. 언제고 큰 코 다친다.

대꾸도 못하고 고통으로 끄끙대는 승민... 그 앞으로 툭 떨어지는 점프기.

최사장 (돌아서 가며) 자기가 알아서 한다네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최사장, 관리에게 인사하고 사라진다.

4. 승민의 집 (아침/안)

insert 주택 외경. 야트막한 나무 울타리,
마당에서 계단을 몇 개 오르면 현관으로 이어지는 소박한 작은 집.

방 안

고급스러운 검은 슈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만지는 승민.
협탁 위 계속 위~잉 울리는 아내 정연의 핸드폰 소리.

승민, 자꾸 신경이 쓰인다.
계속 울리던 핸드폰은 이내 위잉-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음을 토해낸다
볼까...? 말까...? 핸드폰을 집어 들고 잠시 망설이는 승민,
에이!, 이걸 아니다 싶은지, 정연의 핸드폰을 들고 방을 나간다.

부엌

간단한 아침거리를 만들어 식탁 위에 놓는 정연.
서늘한 눈매에 희고 고운 살결, 한 눈에 봐도 매력적인 그녀는
왠지 승민과 격이 다른 느낌이 풍겨 나온다.

승민 (자리에 앉으며) 아까부터 계속 전화왔어. 메시지두 온 거 같은데.
정연 그래? 누구?
승민 마누라 핸드폰이나 훑쳐볼 만큼 쏠쏠하진 않다.
정연 관심이 없는 거겠지.

가스 불에 올려놓은 찻물을 끄는 정연, 녹차잎을 띄우다가 휴우-하고 가늘게
한 숨을 내쉬다가 부엌으로 난 창문을 연다. 덜컹, 창문 밖 알루미늄 새시가
창문 열리는 힘에 덜렁, 간신히 창틀에 걸쳐있다.

승민 새시 집에 연락 안 했어?
정연 (식탁에 앉으며) 깜빡 했어, 어제 일이 좀 있어서.
승민 저러다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구 그러냐 년.
정연 (창간에 얼굴을 박고) 가만히 두면 멀쩡해 보여.
승민 그래두 그렇지야 저러다가...
정연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연락하면 되잖아.
(빵을 손으로 뜯으며) 언제부터 집안 일에 신경 썼다구 그래.
승민 이제부터 쓸라구 그런다 왜!
정연 데리고 있는 연예인 집이었어 봐. 두 팔 걸어붙이고 벌써 고쳐놨을걸.

정연에 말에 승민, 좀 찢린다.

승민 야, 그게 다 우릴 위한 거 모르냐?
진아 뜨는 거, 초읽기야 초읽기. 그럼 우리 외국으로 여행두 다니구.
정연 그 놈의 뜯다는 소리는 어떻게 5년 동안 토시 하나도 안 바뀌어.
레파토리 좀 바꿀 수 없어?

승민, 빵을 입속에 넣고 우적우적 씹다가 지나가는 듯 말을 던진다.

승민 우리 애 날까?
정연 (얼굴 굳는) 됐어. 맘에두 없으면서.

승민 아냐, 진아도 어느 정도 케도에 오르구, 이제 좀 한 숨 돌려두 되니까.
나도 이제 병원두 좀 다녀 볼라구. 이참에 한번 같이 가보자, 응?
정연 (정색하는) 왜 그래? 뭐 또 사고 친 거야? 어제 뭐 카드라도 긁었어?
승민 애는 무슨 말을... (급히 말을 돌리며) 너 웬 녹차냐?
너 커피 안마시면 두통 앞잖아. 너 좋아하는 그...무,무슨 산(山)?
정연 (무심한 목소리) 블루 마운틴...
승민 그래, 그거. 내가 어제 사왔는데, 봤어?
정연 나 커피 끊었어.
승민 아, 비싸게 주고 사온 거야, 마셔 봐.

이때 울리는 승민의 핸드폰.

승민 (급히 핸드폰을 연다) 으..응. 녹화 시간이 바뀌었어?
아이 씨발! 스케줄 꼬이네... 알았어, 내가 조정해 볼게.
정연 욕 좀 하지마.

승민, 빨쭈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며 주스를 한번에 쭈욱!
급히 현관 쪽으로 달려가다, 문득 돌아보는데..

정연 왜?
승민 (뭔가 복잡한 표정) 아니... 그 커피 마셔 보라고.
내 특별히 최고급이래서 샀다니까...

승민, 돌아서 나간다. 승민 뒤에 대고 중얼거리는 정연.

정연 커피 끊었다니깐...

5. 거리 (낮/안)

인도 변에 서서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서성이는 승민.
저만치서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승민 앞에 선다.
차에서 튀어나오는 체격 건장한 대진(남. 20대 초반), 허리를 굽신거리며
뒷문을 연다.

승민 (잔뜩 짜증난) 너 왜 전화 안 받아?
대진 헤헤 (로또 당첨이나 된 얼굴로) 핸드폰 바꿨어요, 최신형 준대서.
그냥 폰이면 말두 안 해, 영상 전화두 되요, 보실래요?

대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민, 퍽- 대진의 쪼인트를 깬다.

승민 이런 대가리에 똥만 들은 새끼를 봤나. 매니저가 핸드폰을 바꿔?
(버럭) 니가 지금 제 정신이냐!

까인 무릎을 잡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대진의 머리통을
시나리오 책으로 사정없이 후려친다.

승민 몇 번을 말해! 매니저한테는 핸드폰이 밥줄이자 생명이라구.
밥줄을 공짜라구 바꿔 먹는 놈이 어딴어?
이제 어떡할 거야? 거래처에 일일이 번호 알려줄래?
(버럭) 당장 원래대로 핸드폰 켜 놔, 새끼야!

차 문을 열고 들어가던 승민, 대진을 흘킨다.

승민 예라이, 싹수 노란 놈아, (차에 올라타며) 공짜에 니 애미도 팔아먹어라!

6. 도로. 차 안 (낮/밖)

INSERT 도로 위를 달리는 승민의 차

뒷좌석에 앉은 승민은 핸드폰 통화중이다.

승민 저희가 감사하죠... 그럼요... 네, 제가 내일 그쪽으로 가서 뵙겠습니다. (점프)
아이, 형! 형 왜 그래? 내가 형하고 겨우 그런 사이야?
일단 한번 오디션만 보게 해 줘. (점프)
네...네... 씨네21이요? 아이구야, 그럼 저희야 땡큐죠. 어디? 스튜디오루? (점프)

여기저기 통화를 마친 승민, 의자 깊숙이 묻었던 몸을 일으켜 바로 앉는다.

승민 ...

호흡을 가다듬고 핸드폰의 번호를 누르며 창 밖을 바라보는 승민의 얼굴에 얼핏 긴
장감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몇 번의 신호가 가고....

승민 아! 네. 어제 전화 드렸던 오승민입니다. (사이) 어떻게? 금액 문제는 좀?
(사이) ..좋습니다. 저기 그리고 말이죠... 처리 기간은? 네?
일주일 정도면 가능하다고요? (열은 미소가 번진다) 우리 또 그런 거 정확하니까.
네! 그럼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럼요, 핸드폰은 잘 때도 끼고 자니까.
네에, 잘 부탁드립니다아~

전화를 끊자마자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핸드폰 포털 사이트를 보는 승민,
오늘 올라온 연예 뉴스를 점검한다.

승민 (플립을 탁 소리 나게 닫으며) 아.. 개새끼들..
그렇게 쳐먹여도 진아 애긴 한 자도 없네.

INSERT 방송국 외경

7. 방송국 (낮/밖)

방송국 내부 스튜디오

토크쇼 <야심만만> 프로그램 녹화중이다.
출연진 속에 단아하게 앉은 진아, 손사레를 흔들며 당황한다.

진아 뭐하러 그런 걸 속이겠어요. 나쁜 짓도 아닌데... 남자 친구 사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MC1 그죠. 그렇지만 윤진아 씨 같은 미인이 남자친구를 못 사겼던 게 후회스럽다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요~?

진아 (웃음)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발레를 하느라, 늘 엄마가 함께 다니셨어요.
엄마가 그림자처럼 다니시니까, 학창 시절에는 남자 친구를 사귀다는 걸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발레 그만두고 나서는 갑자기 연예인이 됐구, 얼굴이 알려지니까
남자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또 지금은 늘 매니저가 따라 다니니까.

MC1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윤진아씨는
“내 인생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가 남자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거다?

진아 (눈을 둥그랗게 뜨며) 아니, 그게 랭크 안에 있을 거 같다고요.

MC2 도전하시겠습니까?

진아 (망설이다가) 네. 도전!

진아의 말이 끝나지 무섭게 바람이 진아의 얼굴을 때린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려도 아름다운 진아.

대본 카드를 보며 “6위에 있었다!”며 아쉽다는 얼굴로 쳐다보는 진행자.

승민이 2층 부조실 유리창으로 내려다보고 서 있다. 그 뒤에 음향기기 앞에
앉아있는 기택(남. 30대 중반, 박원상 분), 기기를 만지작거리며.

기택 (기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재 많이 뺏드라.

승민 (자신만만) 많이 뜨긴, 이제 시작이지.

승민. 기택이 앉은 곳으로 다가와 기기에 반쯤 걸터앉는다.
안주머니를 뒤적여 봉투를 꺼내 기택의 옆구리를 쿡 찌르는 승민.

승민 얼마 안 돼. 밥이나 사먹어.
기택 이 새끼, 사람 뭘루 보구. 뭐야!
승민 아, 씨발 고마워서 그러지. 너 아니면 오락 프로를 어떻게 뚫어.
기택 (봉투를 전 승민의 손을 확 밀치며) 됐어. 20년 우정 한 번에 말아먹을 새길세.

됐다! 받아! 아이들처럼 기택과 가벼운 몸싸움을 하며 장난을 치는 승민.
웅- 핸드폰이 울린다. 킬킬대며 전화를 받는 승민.

승민 네, 여보세... (순간 얼굴이 확 경직되며) 네? 제일기획이요?
(기쁨을 참느라 콧평수 넓어지는) 화장품 모델...이요?

주먹을 불끈 쥐며 입모양으로 '예스'를 외치는 승민.

승민 네. 월요일 괜찮네요... (사이) 네, 좋습니다. 2시에 퇴기로 하구요,
네, 확인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홍분한 얼굴로 기택을 보는 승민.

기택 왜?
승민 드디어, 드디어 진아한테 씨에프(CF)가 들어왔어. 그것두 화장품 씨에프가.

들뜬 마음에 기택이 앉은 데스크를 팡팡 치는 승민.
서겁하며 놀라는 기택, “야야, 이게 얼마짜런데, 조심해” 승민의 손을 막는다.
이때 다시 울리는 핸드폰.

승민 (플립을 열며 들뜬 목소리) 네에~, 오승민입니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진다)
(낮지만 무거운) 무슨 개소리야? 너 씨발 진짜!

확- 플립을 닫아버리는 승민,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에 당황해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는다.

기택 왜, 무슨 전환데?
승민 어, 별 거 아냐, 장난 전화지 뭐.

이때 위잉~ 메시지가 왔다는 신호음.
기택의 눈치를 보며 핸드폰을 열어보는 승민, 표정이 굳어진다.

8. 빌딩, 지하 주차장 (낮/안)

진아를 차안에 밀어 넣고, 대진에게 나가라는 눈짓을 하는 승민.
대진, 군말 없이 밖으로 나간다.
승민, 차 안으로 들어가 창문까지 꼭 닫혔는지 확인한 뒤 진아를 똑바로 바라본다.

승민 (차가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진아 (불안감에 눈빛이 흔들린다)

승민 이런 좇같은 게 나한테 왔어. 이거 너냐? 아니면 어떤 새끼가 장난친 거냐?

승민의 핸드폰 속 동영상을 보는 진아.

(동영상 화면)

알몸의 여자가 섹스를 하고 있는,
상위 채위로 여자의 얼굴이 카메라 정면에 비친다.
절정에 달아 신음을 토해내는 얼굴.

화면 속 동영상을 보다, 순간 무너지듯 얼굴을 감싸 쥐는 진아.
진아의 태도에 화가 난 승민, 번쩍 주먹을 올려 한 대 치려다
간신히 화를 참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갖은 욕설과 함께 타이어를 냅다 발로 내지르는 승민.

INSERT 강남 역삼동 사거리, 전경. 차량 소음으로 가득한 도로.

9. 커피숍 (낮/안)

점심시간이라 제법 손님이 많은 커피숍 안.
거리가 내다보이는 구석 창가 쪽에 앉아 통화 중인 승민,

승민 감독님, 일단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 책을 봐야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사이) 알았어요. 바로 연락드릴게.

이때 커피숍 안으로 인물이 흰한 젊은 남자(윤호, 20대 중반. 승창의 분) 하나가 들어온다. 걸렁걸렁한 걸음으로 승민 앞으로 와 털썩 앉는 윤호, 앉자마자 담배를 입에 문다. 마땅찮은 얼굴로 전화를 끊고 윤호를 꼬나보는 승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승민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건 여전해.

윤호 (담배 연기를 공중으로 흑 날리며) 사람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승민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모양이지?

윤호 (시계를 흘깃보며) 제가 좀 바빠서.

승민 (피식) 나두 너랑 오래 앉아있구 싶은 생각 없어.

승민,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는다.
가방에서 6mm비디오테이프를 꺼내 올려놓는 윤호, 봉투를 슬쩍 앞으로 끌고 간다.
안의 수표를 확인해 보고는 액수가 맞는지 씨익 입이 찢어진다.

승민 (테이프를 집어들며) 너, 나중에 카피본 있다 없다, 지저분한 소리 없는 거다?

윤호 저라구 이려고 싶겠어요. 돈 쓸 때는 자꾸 늘어나는데,
아시잖아요, 모델료, 거 몇 폰 안 되는 거.

승민 (인상 구기며) 다시 보는 일 없는 거야?

윤호 그럼요 (입을 지퍼로 채우는 쉬늯을 하며) 자물쇠 꼭 잠글 테니 걱정 마세요.
쪽팔리기는 저두 마찬가지예요. 진아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승민 쓰읍! (눈알 부라리며) 입조심해. 가봐!

윤호 뱀! 실장님, 아차! 이젠 대표님이시죠? 어째 입에 대표 소리가 잘 안 붙네.
(자리에서 일어나며) 행복하십쇼, 실장, 아니 대표님.

윤호, 봉투를 들고 일어나 커피숍을 나간다.
윤호가 나가자 문 밖으로 눈짓을 하는 승민. 문 밖의 대진이 움직인다.
커피를 쭈-욱 마시는 승민,
테이블 위 비디오테이프를 호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10. 오피스텔 일각 (낮/밖)

고층 오피스텔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는 고급 오피스텔촌.
하얀색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선다. 휘파람을 불며 내리는 윤호.
뽀뽀! 리모콘 잠금장치 작동하고 걸어가는데, 어이! 장윤호!
윤호, 돌아보면,

11. 오피스텔 안 (낮/안)

어~역! 쿵! 바닥에 엎어지는 윤호,
그의 얼굴 위로 딱- 딱- 액상 본드가 떨어진다.
포로처럼 납작 엎드려 얼굴을 바닥에 박고 있는 윤호.
대진이 윤호의 몸을 발로 누르고 있다.

승민 (윤호의 얼굴로 바짝 다가와) 너 이거 뭘 줄 알아? 액상 본드야 액상 본드.
여기다ライター만 갖다 대면, 니 쌍판대기 그날로 굿바이야 좇만아.

라이터를 얼굴 근처에 갖다 대자 본능적으로 움찔 움츠려드는 윤호.

윤호 사...살려주세요.
 승민 어쨌 이 새끼봐라. (다정하게) 왜 이렇게 고분고분해. 사람 변하면 죽는다매?
 (표정 차갑게 변하는) 너 나랑 2년이나 한 술밥 먹고도 아직도 날 몰라?
 씨바라 내가 돈 내놓으라면 네! 네! 하고 줄줄 알았냐?
 윤호 (벌벌 떠는) 자...잘못 했어요. 정말이에요. 도...돈은 저기 가방에...
 돌려 드릴게요, 살려만 주세요, 대...대표님.
 승민 이 돌대가리 새끼야, 카피본 어딴어!

CUT TO

대진이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뜯어 들고 나간다.
 얼굴에 씹창이 난 채로 구석에 앉아 울고 있는 윤호 앞으로 다가오는 승민.

승민 경찰에 신고해. 어떤 놈들이 들어와서 때리고 살림 부셨다구 응?
 그럼 어떻게 되나 보여 줄 테니까, 알았어? 이 씨발 새끼야! 그것도 내놔!

승민, 윤호 목에 걸린 mp3마저 낚아채 들고 (바지에 묻은 먼지 탁탁 털며)
 오피스텔을 빠져 나간다. 씩씩대며 원망스런 눈으로 승민을 노려보는 윤호.
 (오피스텔 안은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뒤집어 까놓은 상태.
 바닥엔 6mm비디오카메라 박살나 있고)

12. 거리. 달리는 차 안 (낮/밖)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정지 신호에 걸리는 차.
 승민, 보조석에 앉아 차 창 밖을 여유롭게 바라본다.

대진 (킬킬대며) 그 새끼, 거 진짜 밀대. 액상 뽕드래니까 쫓아가지구.
 승민 (정색하며) 그거 진짜야, 임마.
 대진 (승민 보는) 에이, 아무리 그래두, 농담이지?
 승민 (진지한) 너 같으면 그 상황에 농담이 나와?
 대진 (흠칫 놀라는) 그럼 진짜 불 붙는거야? 터져?
 승민 (킁킁대며 웃는) 거봐 새끼야, 너두 밀잖아.
 너, 내가 KBS 연기자 공채 2차까지 붙은 거 모르지?
 대진 그 얼굴로?
 승민 내 얼굴이 어때서... 딱 방송 스타일이지 새끼야.
 내 연기력이면 준 주연급이야. 아, 말나온 김에 방송국 최피디한테 전화나 때릴까.

승민,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다.
 어라? 어디 갔지? 바지 호주머니, 웃웃 안쪽을 더듬더듬 대는 승민, 아차!

INSERT 윤호를 끄나보며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승민.
비디오테이프를 집어 드는 승민의 손 옆에 놓여 있던 검정색 핸드폰.

승민 야, 차돌려!
대진 어딜???
승민 아 그 커피숍으루! 차 돌려 새끼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대로 유턴하는 대진.
주위의 차들이 빵빵! 크랙션을 울리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승민의 차.

13. 커피숍 (낮/안)

손님이 빠져 한가로운 커피숍을 뒤로 하고 나오는 승민과 대진.
사색이 된 얼굴로 몇 발자 걸어 나오던 승민,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그 자리에 휘청한다.

대진 형! (승민의 팔을 붙잡으며) 괜찮아?
승민 (금방이라도 돌아버릴 듯 발로 땅을 차며) 죽었다.
오늘 제일기획 차실장한테 다시 전화 올텐데... (신음처럼 내뿜는) 아이 씨발...
대진 핸드폰 정지시키구 착신 넘겨버려.
승민 (얼굴에 화색이 돌며) 그렇지, 아 씨발 괜히 히겁했네.

대진에게 담배를 건네받는 승민, 담배를 입에 문다.
불을 붙여주려 대진이 라이터를 갖다 대는 순간
승민의 입에 물려 있던 담배가 툭~ 땅으로 떨어진다.

대진 에이씨, 돛댄대.

떨어진 담배를 주워 호호 불며 고개를 드는 대진.

승민 (거의 울듯한) 씨발, 동영상 안 지웠어!

14. 변호사 사무실 복도. 거리 (낮/밖)

정연이 생각 많은 얼굴로 변호사 사무실 빌딩을 나온다.
정연 뒤로 보이는 간판 <변호사 한준수> 이혼/양육 상담 전문!
건물에서 나와 몇 걸음 걸어가던 정연,
뭔가 결심한 듯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든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전화를 걸려하는데. 마침 남편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정연 음... 웬일이야? 안 그래도 전화할려 그랬는데, 자기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E)

정연 듣고 있어? ...할 말 있어서 그래.

(E) 저...기...

녹녹한 말투, 낮은 남자 목소리다.

예상 밖의 낮은 남자의 목소리에 당황하는 정연.

정연 (!!) 누...누구세요?

(E) 핸드폰 주운 사람인데요, 핸드폰..... 돌려 드릴려구요.

정연 어, 그거 남편 핸드폰...인데...

(E) 예... 안 그래도 단축번호 1번으로 한 건데...

정연 남편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아주 잠시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흐른다.

(E) 저....저기..요

남자의 목소리는 웬지 머뭇거리는 듯 수줍게,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린다.

정연 네, 전화번호 적으실래요?

(E) 저기 실례지만, 핸드폰 액정에 있는 사진... 본인이신가요?

정연 !!!

15. 커피숍 앞. 거리 (낮/ 밖)

깜빡이등을 켜 채로 길가에 세워진 승민의 차.

대진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승민, 전화는 통화 중이다.

거의 정신 나간 얼굴로 플립을 신경질적으로 닫는 승민.

승민 아 씨발, 대체 남 핸드폰으로 어디다 통화질이야?

이때, 울리는 대진의 핸드폰. 승민, 전화를 받는다.

승민 여보세.... 당신이 왜? ... (표정 밝아지는) 그래? 알았어. 바로 전화해 볼게.

정연과 전화를 끊고 급히 전화를 거는 승민의 표정이 금새 살아난다.

승민 후- 사람 죽으란 법 없다. 핸드폰 주운 사람이 전화했대.

대진 그래요?

전화를 거는 승민의 얼굴에 여유로움이 보인다.
승민, 입에 손을 갖다 대며 담배를 달라는 시늉을 하자
대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편의점을 찾아 저만치로 달려간다.
그 모습을 보며 여전히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승민.
그런데...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왜 안 받지?’ 초조한 표정의 승민, 전화를 끄고 다시 자기 번호를 누른다.

16. 야외 촬영장 (저녁/ 밖)

“헐. 드. 폰! 꺼~어 주세요”
구경꾼들 사이를 오가며 사진 촬영을 하지 말라고 뛰어다니는 대진이 보인다.
어두운 계단 위로 강한 조명이 반사되는 뮤직 비디오 촬영 현장.
감독의 큐 싸인! 계단을 다급히 뛰어내려오는 진아의 모습이 보인다.

그 현장 한 구석.
승민이 억지로 화를 참으며 대진의 핸드폰을 들고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텝들에게 드링크를 돌리고 오는 대진, 승민에게 드링크 한 병을 따서 건넨다

대진 아직두 안 받아?
승민 (드링크를 벌컥벌컥) 이 새끼, 봤어.
대진 에?
승민 (잔뜩 상기되어) 이 새끼, 지금 잔대加里 굴리고 있는 거라구.

17. 기획사 사무실. 승민의 방 (안/낮)

책상위 명함 책을 뒤지고 있는 승민, 곤두선 표정.

승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분명 명함에다 적어놨었는데...

이때, 노크 소리.
대진이 얼굴을 빼꼼이 내민다.

대진 형,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승민 없어? (짜증스런) 왜 어제 그 꽃바람피디 번호 말 때,
내가 노래 부르다 흘러서 니가 보관했던 내 명함 있잖아.
거기 중요한 번호 적어놨단 말이야!
대진 (더 주눅 드는) 그게 그러니까... 그 명함 책에 둔 거 같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들고 있던 명함 책을 책상에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는 승민.
움짤 놀라는 대진, 문 뒤로 고개를 숨긴다.

승민 중요한 거니까 이려고 있지? 씨발아!! 사무실 다 까뒤집어서라도 찾아내!
대진 (꺼져가는 목소리로) 네...

조용히 문을 닫는 대진.

승민 이 새끼는 도대체 왜 전할 안 받는 거야!
 이거 전화번호를 알아야 뭐 일을 할 거 아냐? 이감독 미팅이 오늘이야, 내일이야?

돌아버리겠다는 얼굴로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 드는 승민.
수화기 너머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기계음만 들릴 뿐이다.
부술듯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승민,

승민 개새끼!!

18. 락커룸 (저녁/ 안)

굳게 닫혀있던 사물함이 열리면서 안으로 빛이 들어온다.
문 안쪽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큰곰자리 은하단 사진,
긴 꼬리의 헬리 혜성 사진까지 천체 사진들이 도배되어 있다.
몇권의 책들... 그리고 잘 정돈된 칫솔, 치약, 작은 수건, 자일리톨 껌
한 통. 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어떤 이의 등 뒤로 위잉~위잉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 옷을 다 갈아입고 핸드폰을 집어 드는 하얀 손.
플립을 열자 액정에 비친 정연의 사진이 보인다.
핸드폰을 귀에 갖다 대자 이내 핸드폰에서 들려오는 승민의 악다구니.

(승민) (다짜고짜 버럭) 야이, 씨발아!!! 너 뭐하는 새끼야!?
 전화를 돌려주기로 했으면 전화를 빨리 받아야 할 거 아냐? 누구 놀려?
 너 씨발! 핸드폰으로 인터넷 결제하고 그런 거...암튼 됐고! 얼마면 돼?

 툭- 그냥 핸드폰 플립을 닫는 손.

19. 사무실 (저녁/밖)

회번득 눈이 돌아가는 승민, 손을 벌벌 떨며 다시 번호를 누른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으로 넘어 갑니다”는 기계음만 들릴 뿐 상대는 다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승민 하- 이 새끼, 사람 열 받게 하네.

오기가 발동해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르는 승민.
몇 번의 전화벨이 울리고... 딸각, 드디어 받는 전화!

승민 야, 너 뭐하는 새끼야?
(E) 뭐하는지 알아서 뭐하게?
승민 !!!!!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의 서늘한 느낌이 승민의 척추를 타고 짹악 흐른다.

승민 (말투가 반사적으로 누그러지며) 아니, 사람이 그럴잖아.
핸드폰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으니까...

뚜--- 끊기는 핸드폰.

승민 아이 씨발! 진짜!!

습관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찾는데 담배 갑이 비어 있다.
얼른 다가와 담배를 건네는 대진.
승민, 입에 문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깊이 물었다가 흑- 연기를 날리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있다.

문득 멍동!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 신호음.
미간을 찌푸리며 문자를 확인하는 승민.

<니 목소리 짜증나! 핸드폰 받고 싶으면 니 와이프한테 전화하라 그래>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부터 나오는 승민,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며 급히 녀석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신호만 갈 뿐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쥔 승민을 대진이 불안하게 쳐다본다.

대진 형? 왜 그래?

승민 이 씨발 놈! 사람 갖고 놀고 있어. (녀석에게 온 문자를 대진에게 보여주며)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완전 또라이 새끼 아니냐?

대진 형, 그냥 핸드폰 정지시켜 버려.

승민 (버럭) 안된다니깐!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인터넷에 띄우기라도 하면?

대진 (금새 쭈그러들어)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어...(승민의 표정보며)요?

손에 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승민, 고민 속에 플립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한다.
한 숨을 내쉬곤 결심한 듯 정연에게 전화를 건다.

승민 어, 난데...

20. 승민의 집. 거실 (안/ 저녁)

정연 전화를? 당신이 해.

(승민) 야, 그 새끼가 나하곤 말 안한대. 너랑만 하겠대.

정연 그 사람 목소리 얼마나 기분 나쁜데.

(승민) 야, 지금 내 기분만 해? 좀 해 줘라. 나 죽는다, 아주.

정연 (마지못해)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

너무 하기 싫은 전화다.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는 정연, 다시 통화 버튼을 누른다.

몇 번의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다.

정연 음... 저어,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아낸데요.

핸드폰 돌려받고 싶어서요... 만났으면 하는데 어디가 편하세요?

(E) (다짜고짜) 목소리는 차분해 보이는데, 성격은 꽤 급하신가 봐요?

정연 !! 네?

(E) 아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 끊었잖아요.

정연 아?... 아까는 좀 당황해서.

(E) 키가 커요? ... 왠지 말랐을 거 같은데, 마른 체형인가?

그럼 좀 신경질적일 수도 있겠네요....

정연 (냉담한) 저기요, 핸드폰 돌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E) 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지. 돌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내가 먼저 전화를 해요? 내가 뭐 또라인 줄 알아요?

정연 아뇨... 그런 게 아니구요...

(E) 키가 얼마예요, 대체?

정연, 올라오는 화를 꼭 참으며 가늘게 숨을 몰아쉬며 진정시킨다.

정연 1680이요.

(E) 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목소리 톤이 낮은 걸루 봐선 키가 클 거 같더라구요.

소름이 돋는지 가볍게 치를 떠는 정연.

정연 저기요, 약속 장소를 알려주세요.
(E) 어느 동네 사는데요?

21. 승민 집 근처 공원 앞 (밖/밤)

가로등 밑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승민,
띄엄띄엄 놓인 벤치에 아베크족들이 가끔씩 보이는 공원 전경.
공원 중앙에 놓인 시계는 이제 막 9시 50분을 넘어간다

(정연) 10시에 만나재. 약속은 정확히 지켜 달래.
1분이라도 늦으면 그냥 간다구. 그 사람 좀 이상해, 조심해.

승민, 연신 시계를 보며 가로등 밑을 왔다갔다, 혹시 왔을까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공원의 시계 바늘이 10시 1분을 넘어간다.
담배꽂이를 바닥에 버리고 구둣발로 불을 끄는 승민,
핸드폰을 꺼내 정연에게 전화를 건다.

승민 난데, 어디 좀 왔냐구 물어봐.

CUT TO

(짜증난) 아까두 공원 입구라고 했잖아! (인상) 아니,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나, 정문 앞 가로등 앞에 있다구 얘기해 줘.

CUT TO

(버럭) 그 새끼 오긴 온 거야? 아, 그렇다니까!
무슨 말이야? 벌써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공원의 시계 바늘이 10시 50분을 넘어간다.
핸드폰을 꺼내며 씩씩 대는 승민, 자기 핸드폰 번호를 눌러보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으로 연결됩니다...”

승민 이런 개새끼!

씩씩대며 공원을 빠져 나가는 승민. 이때 프레임 안으로 들어서는 어떤 이의
뒷모습. 손에는 승민의 까만색 핸드폰을 쥐고 서서, 승민이 공원을 빠져 나가는
걸 지켜보다, 천천히 따라간다.

22. 승민의 집 (안/밤)

현관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승민.

부엌에는 정연이 식탁 위에 찻잔을 놓고 컵 주위를 손으로 뱅그르르 원을 그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승민 들어서는데도 보질 못한다.

승민 웬 생각을 그렇게 해? 사람 들어온 줄도 모르고.

정연 (화들짝) 어, 당신 왔어!? 핸드폰은?

승민 몰라, 에이~ 씨발 새끼...

승민, 거실로 들어서면서 양말을 욕실 앞으로 핵 팽개치고 부엌으로 간다.

정연 안 나타난 거야?

승민 (냉장고 문을 열며) 에이 씨발, 개새끼...

승민,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병째로 벌컥벌컥.

정연 제발 욕 좀 하지 마.

승민 (욕- 해서 돌아보며) 그 새끼말이야... (정연의 싸늘한 시선, 얼른 말 바꾸며)
아니 그 인간 말야, 사람을 갖고 놀고 있잖아.

정연 아예 안 나온 거야?

승민 코빼기도 안 보여. 시간만 와장창 날린 거지 뭐. 근데... 안 자?

승민, 생수통을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정연 나 오늘 준수 선배(썸17의 변호사) 만났어.

등 뒤로 들려오는 정연의 말에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승민.
입가에 흐르는 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표정을 이완시키려 애쓴다.

승민 (냉장고에 물을 넣으며) 형은 잘 지내고?

야, 지난번에 보니까 TV에도 나왔던데, 잘 나가나봐.

정연의 시선을 의식적으로 피하며 욕실로 들어가려는 승민.

정연 얘기 좀 해 우리.

승민, 멈칫, 팬스레 현관 옆 진열장에 놓인 수석들만 만지작...

승민 둘이 또 늘었네. 괜찮은데.

정연

승민 (불쑥) 저기, 나 내일 병원 가볼 건데... 같이 가보자.

정연

승민 왜? 싫어? 넌, 무슨 애가 그러냐? 선배 만나구 돌 사올 시간은 있구,

병원 갈 시간은 없어?
 정연 (한숨) 왜 자꾸 딴 소리야? 정말 난 자기가 이럴 때마다...
 승민 정연아! 내일 얘기하자 응? 나 오늘 정말 너무 피곤해.

욕실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승민, 정연의 난감한 얼굴....

23. 어느 공간 (같은 시각)

푸른 핸드폰 불빛만이 주위를 밝히는 어두운 공간.
 핸드폰을 켜 어떤 이의 실루엣이 불빛에 어른거린다.
 어둠 속에 핸드폰을 이것저것 눌러보는 손.

<핸드폰 액정 화면>

- '친구' '가족' '거래처'의 전화번호
- 일정 관리에 빼곡한 스케줄들
- 사진 파일에 들어 있는 진아가 험찬 의상 입고 찍은 사진들
- 동영상 파일들... 승민의 생일잔치....몇몇 직원들...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박수소리...'에이~ 근데 형수 없으니까 재미없다. 오늘 안와?' '어, 오늘 회사 관두잖아. 회식있대' '잘됐네. 이제 형 소원대로 방콕 마님?' '글쎄...'
 '씨발 싸돌아댕기면 이걸로 콕! (파일칼 치켜들며) 손가락 하나 잘라버려!'
 '미친 새끼! 니 여자한테나 씨먹어라, 씨발아!' 사람들 웃고...
- 불쑥 샷워실로 들어가는 카메라, 화면에 나타나는 샷워하는 정연의 뒷모습 동영상...손으로 대충 몸을 가리며 부끄러워하는 정연을 찍는 화면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 '아이, 그만해, 쟁피해' '뭐 어때? 내 마누라 내가 찍는데'
 '그럼 당신두 같이 찍어' '됐어, 나 카메라 알레르기 있어' '싫어, 같이 찍어'
 카메라로 다가오는 정연의 손, 이내 흔들리는 동영상, 잠시 뒤 정지.
- 다시 한번 동영상을 돌려보는 손... 부끄러워하는 정연의 뒷모습 화면이 다시 보인다, 문득 **명동!** 음성메세지가 들어왔다.
 실루엣, 음성을 확인해보려 하나 비밀번호를 묻는 안내목소리...

실루엣

24. 승민의 집. 거실 (밖/아침)

테이블 위 재떨이에 가득 찬 풍초.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이 든 승민은 자기 숨소리에 놀라 번쩍 눈을 뜬다.
 눈을 뜨자마자 베란다 밖을 내다보는 승민.
 날이 밝았다는 걸 깨닫자 집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건다.
 몇 번의 신호가 가고 녀석이 전화를 받는다.

승민 여보세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깍뚝이) 접니다.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가요? 어젠 왜 안 나오셨어요?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저기...선생님,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바쁘시면 제가 그냥 그리로...

(E)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승민 (주춤) 뭐, 뭐하는 사람이라뇨?

이때, 방 안에서 승민의 통화 소리에 잠이 깬는지 정연이 밖으로 나온다. 통화하는 승민을 무심한 얼굴로 보고는 부엌으로 가서 믹서기와 과일 몇 가지를 꺼내 놓는다.

승민 무,무슨 말이신지...

(E) 전화가 쉬질 않고 와. 귀찮아 죽겠어.

일일이 받기도 귀찮고, 꺼 놓으면 당신이 또 지랄, 지랄할 거 아냐?

승민 어젠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어, 일단 좀 만나시죠. 만나서 얘기했으면 하는 데...

(E) 저기 말야, 이 노래 제목이 뭐야?

승민 (이번엔 또 뭐야 싶은) 네?

잠시 뒤 전화기 저편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음악.

승민 (울컥 올라오는 짜증을 삼키며) 아, 저 그게 제 로드가 잠 안올 때 들으라고... 제가 다운 받은 게 아니라서 제목을 저도... 죄송합니다, 저어, 지금 좀 봐요. 음악 좋아하시면 제가 좋은 시디라도 몇 개...

(E) 지금? 지금은 바쁜데.

승민 (고개를 돌리고 이를 바드득 갈고는) 저기 선생님, 바쁘시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핸드폰, 킁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좀 급해설랑...

(E) 킁으로? 킁으로 보내는 건 너무 성의 없지 않나?

승민 에이, 성의는요,무슨! 괜찮습니다. 저기 선생님도 이런 경험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핸드폰 없이 하루를 보내니까, 그냥 막 불안하구 답답해설랑...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그런 실례까지...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말이 없자 의도적으로 웃는) 하하! 사람이 그럴잖습니까?

위잉- 믹서기에 과일 가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진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승민, 미간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손으로 막는다.

(E) 어찌지? 당신 핸드폰에 있는 음악 다운받으려면 시간 좀 걸릴 거 같은데.

승민 (울컥)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다요?

(E) 당신 말야, 입은 거친데 듣는 음악 취향이 꽤 고급스러워.

여기 있는 다른 곡들도 마음에 들어. 당신 핸드폰에 좋은 게 참 많더라고.

승민, 순간 화가 저도 모르게 울컥 입을 뚫고 나온다.

승민 **아이 씨발아! 남의 핸드폰 함부로 만져대면 절도죄로 걸리는 거 몰라!**

말해 놓고도 아차! 싶은 승민.

(E) **절도죄?! 칫-**

그 순간 뚜- 핸드폰 끊어지는 소리.

승민, 당황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다.

승민, 올라오는 성질에 수화기를 냅다 던져버린다.

와장창 박살이 나는 수화기.

그 소리에 놀라는 정연, 이내 정연의 얼굴에 분노가 스친다.

승민

그런 정연에게서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씩씩거리기만.....

25. **어느 공간 (같은 시각)**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 복작거리는 소리들...

핸드폰 액정 속 사진에서 정연은 웃고 있다.

핸드폰 메뉴를 빠르게 누르는 손.

<오늘의 일정>

화면 가득 핸드폰에 메모되어 있는 일정표가 빠르게 지나간다.

26. **산부인과 병원 진료실 (오전/안)**

진료실 옆 작은 방, 조금 어둡다.

멀뚱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승민, 앞에 놓인 텔레비전 화면에 야한 비디오가 시작된다. ‘꼭 이걸 봐야 하나?’ 싶은 얼굴로 휴우- 한숨을 내쉰다.

(시간 경과)

벌게진 얼굴로 진료실로 나오는 승민.

들고 있던 작은 컵을 쑥스러운 듯 간호사에게 건넨다.

CUT TO

의사 앞 의자에 멀뚱히 앉아 있는 승민,

의사 (차트를 넘기며)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승민 (말뚱) 아니... 뭐 조금...
 의사 담배는요? 많이 태우세요?
 승민 하루에 두갑 정도... 그게 저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의사 정충수가 일천(만) 미만이예요.
 승민 그게 무슨 말? ...이신지?
 의사 한마디로 부정자증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치입니다.
 승민 (긴장) 그러면... 임신이 안되는 건가요?
 의사 자연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허나 인공수정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부인과 함께 다시 한번 와보시죠? 그때까지 술담배도 좀 줄이시구요.
 승민

27. 거리. 차 안 (오전/안)

미나 뺨 문이 확- 열리면서 급히 승민이 올라탄다.
 차 안에는 진아가 화장을 수정하고 있다.
 “오셨어요” 코디, 진아, 대진, 대여섯 명의 인사를 받으며 진아 옆에 앉는 승민.
 어제 일 때문인지 진아의 표정이 무겁다.
 승민, 모르는 척 담배를 꺼내 물려다, 병원일 때문인지 다시 집어넣고
 운전석의 대진에게 시간을 재촉한다.

승민 야, 이거 지금 가면 늦지 않냐? 미리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냐?
 대진 100번 돌려서 지금 가도 떡을칩니다요, 떡을.

대진이 기어를 풀고, 잠시 후 차가 출발한다.

진아 그 일은....?
 승민 아, 그거! 잘 됐어.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아 정말요?
 승민 아이 씨... 내가 이 바닥 몇 년이나. 딴 생각 말고 넌 오늘 인터뷰나 잘해.
 윤진아, 오늘 중요한 인터뷰야. 주목받는 총무로 육인의 신인이 타이틀이야.
 잘 하면 씨네21 표지에 실릴 수 있다구.
 (건너편에 앉은 코디에게) 오늘 옷 몇 벌 준비했어?
 코디 12벌이요.

진아, 안도의 한숨을 가늘게 내 쉰다.

승민 좋아. 흰색 원피스는?
 코디 두벌이나 준비했어요.
 승민 오케이!

내용을 확인하자 비로소 의자 깊숙이 몸을 편히 기대는 승민, 피곤해 보인다.

대진 (툼밀러로 승민을 보며) 핸드폰 찾았어?

승민 말도 마. 그 개새끼 안 나왔어.

대진 예? 그거 완전 또라이네.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승민 아침부터 전화해서 사람 속 뒤집어놓고, 또라이중에 상또라이이다.

야! 너 핸드폰 좀 줘봐.

대진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은 승민, 팬스레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며 하나하나 오늘 일정을 체크하는 척 하며, 문자 하나를 날린다.

<여보, 아침엔 미안. 화 풀어라. 자기 화내면 나 무서^^;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이내 하트하나 더 찍고 발송...

(시간 경과) - 음악

시가지로 달리는 미니 밴은 어느새 자유로 해이리로 진입한다.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

도착 지점이 가까워지자 진아에게 인터뷰할 때 주의 사항을 인지시키는 승민.

승민 질문 받고 나서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란 말이야.

뭔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음...' 하고 나직하게 소릴 내면서 일단 시간을 벌어. 그리고 나설량 천천히....

대진 (킁킁) 그건 딱 형수님인데.

쓰읍! 승민, 눈을 부라리면, 대진 정색하고 운전엔 열중.

승민 (다시 진아에게) 그리고 너 제발, 질문하는 기자하고 눈 좀 마주쳐.

기자가 질문하는 데 허공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알았어?

진아, (마치 슈렉의 장화신은 고양이 같은) 안쓰런 눈망울로 꼬덕꼬덕...

승민 대책이 안선다는 듯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절레절레, 좌석에 푹 파묻힌다.

28. 해이리 영화 박물관 앞 (낮/밖)

박물관 앞으로 걸어오는 승민과 진아, 대진, 코디.

인터뷰 장소 주위는 생각보다 조용하다.

무심코 시계를 보는 승민.

승민 너무 일찍 왔나? 대진아! 안에 들어가 봐. 미리 와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

대진이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고,
승민, 하릴없이 진아와 박물관 근처를 구경한다.

승민 야, 여기 좋네! 벌써 공기가 틀리네 공기가. 사람은 모름지기 말야,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말야. 그래야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하게! 어?
애도 좀 팍팍 넣고, 잘~ 살텐데 말이야. 안 그래?

진아

(시간 경과)

쫓그려 앉은 진아, 기다리는 게 슬슬 짜증이 이는 표정이다.

승민, 스트레스 만땅, 담배 물고 있다.

계속 손목시계 한 번 보고, 길가 한번 쳐다보고. 시계는 벌써 30분이 지나갔다.

대진은 114에 대고 씨네21 전화번호 묻고

다시 촬영 담당 기자 이름을 대고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는 중이다.

대진 공일일 구철팔에 삼구일사. 아, 네, 감사합니다.

승민 뭐래?

대진 촬영 나갔다는데요.

승민 그래, 오는 중인가 본데. 전화 한 번 해 봐.

대진, 신호가 떨어지자 승민에게 핸드폰을 넘겨준다.

승민 (짱그리고 있던 얼굴이 일순간 퍼지는) 아, 오기자님!

왜 안 오시는 거야? 이거 촬영 기다리다... (얼굴 굳어지는) 네? 약속을 바꾸다니?

(진아와 눈이 마주친다. 애써 여유롭게 웃는) 제가요?

(기자) 오늘 아침, 촬영 취소하고 싶다고 문자 와서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로드 매니저란 양반이 받던데.

순간, 승민은 아침에 통화했던 녀석이 떠오른다.

웬지 불안한 예감이 스친다.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승민.

승민 여보세요? 아, 저, 접니다. 티엔씨 오대표요.

오늘 저녁 약속.... 네? 거기두 취소한다는 문자가... (맥빠져 잦아드는) 갔다구요?

간신히 화를 참으며 전화를 끊는 승민, 점차 분노의 표정으로 바뀐다.

승민 장난을 쳐? 이 씹새끼가!

29. ** 통신 회사 기지국 (안/낮)

드르륵, 드르륵... 통화 내역 조회서를 뽑아 흘깃 보더니 승민에게 건네는 직원.
통화 내역서를 훑어보며 생각에 빠지는 승민.

승민 (중얼중얼) 씹새끼... 오늘 일정보고 다 전화 때렸어.
(쪽 훑어보다 한편으론 가우뚱) 씹새끼 이상하네... 700 유료 그딴 건 또 없고...
대체 뭐하자는 수작이야?
직원 (불쑥) 발신 정지 시켜드릴까요?
승민 (생각에서 깨어나며) 예?
직원 발신만 정지시켜 드리냐구요. 상대방 통화는 해야 돌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승민 그렇게... 아니... 그건 됐구, 참... 위치, 위치 추적은?
직원 핸드폰이 꺼져 있네요. 마지막 발신지가 서울시 사당동인데요.
승민 (바짝 긴장해서) 사당동 어디요?
직원 (모니터의 지도를 확인하고) 사당 시장 일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여직원은 끝까지 사무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승민 사당 시장 일대? (한심스러워 피식 웃음이 난다)
(슬슬 화가 올라오는) 아니 지금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구,
위치 추적이면 어디다 딱! 딱! 정확하게 말해 줘야죠.
직원 고객님! 그런 거라면 경찰서로 가 보세요!
승민 (괜히 찢려서) 경찰서? 핸드폰 하나 때문에 경찰서 가라구요?
직원 (여전히 사무적으로) 경찰서에 가면 딱 딱 정확하게 위치 추적해 드려요.
승민 (누그러지며 애원하는) 저기, 통신사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까?
어떤 또라이 새끼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나한테 막 장난을 친다구요!
직원 (귀찮은 듯 한숨을 내쉬는) 정 그러시면 상대방 전화 녹음해 뒀다가
증거물로 제출하세요. 경찰에서 즉시 위치추적 해 줄 테니까. 다음 고객님임~

뒷사람에 밀려 주춤 물러나는 승민, 통화 내역서를 움켜쥔다.
여기서 이려고 있다고 녀석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겨진 통화 내역서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오는 승민.
그 뒤로 기지국 여직원, 채수 없다는 얼굴로 뒤통수를 쏘아본다.

30. **이동 통신 대리점 (밖/낮)

유리 진열장 위에 흰색 핸드폰을 가리키는 승민.
점원, 핸드폰을 진열장에서 꺼낸다.

CUT TO

점원, 핸드폰을 개통해 내밀며 뭐라고 주저리주저리...

(핸드폰의 부가기능과 요금약관에 대한)

똥한 표정으로 그저 한 귀로 흘리는 승민... 아내 정연에게 통화를 시도.

(정연) 여보세요?

승민 (표정 바꾸며 밝게) 어, 나야. 핸드폰 새로 뒀어.

(정연) 잘 했네.

승민 어, 그래. 그,근데 기왕 이 참에 자기 것도 바꿔 보는 거 어때?

커플 폰 좋잖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

(정연) 뒀어. 바꾸면 귀찮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나 좀 바빠. 이따 통화해.

아내가 전화를 끊는다. 빨쭈뼀 승민....

이내 대리점을 나오며 케이스를 뜯어 바닥에 내버리고 급히 차에 올라탄다.

31. 변호사 사무실 (밖/낮)

잘 정리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무실... 변호사 <한준수>란 명패도 보이고...

정연, 한 눈에 봐도 깔끔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변호사 준수

(선25에 언급된 준수 선배)와 마주 앉아 있다.

준수 ...남편이야?

정연 네...

준수 아직 애길 못 꺼냈어?

정연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엇그제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그때부터 신경이 곤두서서 말만 하면 짜증부터 내구...

(한숨) 자꾸 딴 얘기 들먹거리면서 제대로 얘기 할려고 들지도 않구.

준수 (찬찬히 정연의 표정을 살피며) ...애길 꺼내기 싫은 건 아니구?

정연 (단호한) 아뇨!

단호하게 말을 뱉은 정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정연 실은... 잘 모르겠어요.

정연, 답답한 심정으로 준수를 바라본다.

준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 결정은 니가 하는 거니까.

나야 기다리는 수 밖에. 이혼이 말이 쉽지... (걱정스런) 그나저나 몸은... 괜찮아?

요즘 계속 피곤하고 어지럽다며? 병원부터 가 봐야 되는 거 아냐?

준수의 말에 정연, 불안한 표정...
준수가 정연의 손을 따스하게 감싸 준다.

32. 역삼동 사거리 (밖/낮) 음악

교통량이 많은 도로 한복판.
각종 입간판들이 어지러이 보이는 도심 전경.
백화점, 패스트푸드, 할인마트, 스타벅스 등 입간판들 위로 소리 선행한다.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33. 마트 (안/낮)

경쾌하고 밝은 ‘해피, 해피 로고송’이 흐르는 매장 안.
활짝 웃고 있는 직원들이 매대 앞에서 90도 각도로 인사하며
“고객은 왕이다”를 외친다.
이윽고 그 사이로 하나 둘씩 쇼핑을 하며 지나가는 고객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직원들 다시 90도 각도로 인사.

카트를 밀며 아줌마1이 지나가면, 고객 센타 데스크가 정면으로 보인다.
데스크에서 제삿상을 앞에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여직원1과 아줌마 고객1

여직원1 사용하신 물건은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거 보세요, 기름얼룩까지 묻었잖아요.

고객1 사용하다니? 이걸 살 때부터 이랬다니까. 그래서 바꾸려는 거지.

점점 소리를 높이는 여직원1과 고객1.

(소리) 무슨 일이지요? 고객님의!

이때 한 손에 무전기를 쥐고 데스크 안으로 프레임 하는 남자(이규, 20대 후반)
몸 전체에 밝고 환한 표정, 반듯한 분위기가 풍겨 나온다.

고객1 아니, 상이 맘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는데,
 이 아가씨가 엉뚱한 트집을 잡고 안된다는 거지 뭐야.

이규, 여직원을 본다. 여직원, 올려놓은 밥상 위 기름얼룩을 가리킨다.

여직원1 고객님이 상을 사용하셨어요. 여기 쓴 흔적이 있는데...

이규 (따뜻한 미소) 환불해 드리세요. (고객에게 목례를 하며)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여직원1, 못마땅한 얼굴로 돈을 집어 고객1에게 건넨다.
만족스런 표정으로 이규에게만 인사를 하고 돌아서 가는 고객1.
저만치 가는 고객1을 보며 여직원1, 이규에게 눈을 흘긴다.

여직원1 추석 차례 때 쓰고 돈으로 바꿔가는 거야. 도둑놈 심보.
이규 (여직원1을 보며 빙그레 웃는) 성은씨, 우리 규칙 제 1항이 뭐지?
여직원1 그러니까... (마지못해) 고객은 늘 옳다!
이규 고객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여직원1 규칙 제 1항을 다시 떠올려 본다.
이규 (웃는) 잘 아네.

‘정주임 님, 정주임님!’

여직원과 얘기하는 이규 뒤로 전화 상담을 받고 있던 여직원2,
수화기를 높이 쳐들며 급히 이규를 부른다.
여직원1의 어깨를 툭툭 쳐주며 전화기 앞으로 달려가는 이규.
여직원2, 진상이라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건네며 몸서리를 친다.
더불어 동료선배 명식도 고개를 절레절레... 이규, 전화를 받는다.

이규 (힘주어)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소리) 청소기가 또 고장났어. 또!!

담배를 오래 피어 가래가 끓는 것처럼 거친 음성의 남자 목소리.
마음을 다 잡고 자리에 앉는 이규, 수화기를 고쳐든다.

이규 (친절히) 아... 그러세요?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죠? 고객님!
(소리) 어디가 어떻게 고장난 줄 알면 전화를 왜 하나?
이규 죄송합니다. 고객님, 일단 상품을 가지고 오시면...
(소리) (다짜고짜) 똥개 훈련시키나?
이규 ...
(소리) 이거 하나 바꾸러 거길 또 가라구?
이규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오시면 저희들이 보고 바로
환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소리) 진짜야?
이규 그럼요. 바로..
(소리) 아니 그거 말고.
이규 네?
(소리) 거 죄송하다는 거, 진짜냐고?
이규 (짧은 침묵) ..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소리) (다짜고짜) 얼마나?
 이규 (당황) 아... (답변할 말을 찾느라 고개를 까닥하며) 네, 고객님 왔다 갔다 하시게 하는 것도 죄송하고...
 (소리) 그럼 다시 한 번 사과해 봐.
 이규 ...
 (소리) 그렇게 죄송하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이때, 동료선배 명식이 (손님과 대화하다) 힐끗 굳은 표정의 이규쪽을 쳐다본다.

이규 (굳은 무표정) ...죄송합니다. 고객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34. 마트 옥상 (안/낮)

온갖 잡동사니, 박스들로 지저분한 옥상...
 그 한켠 평상처럼 놓인 긴 의자에 누워 쉬고 있는 이규.
 그 옆으로 (한 손에 종이 커피 잔, 한 손엔 담배를 들고)와 앉는 동료 선배 명식.

명식 어디 갔나 했다. 힘드냐?
 이규 ...헉!
 명식 엉?
 이규 우리가 사는 지구 말야,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도 아주 작은 별이잖아.
 명식 그러냐?
 이규 그 태양계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은하에 속한 작은 별무리일 뿐이고.
 명식 근데 그게 뭐?
 이규 그 넓은 우주에서 보면... 진짜... 진짜루 지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먼지 같은 건데... 먼지 같이 작은 지구에서도 그것도 진짜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에서 말야... 발붙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명식 (안쓰러운 듯 보는) 그 영감건은 이제 잊어버려.
 자꾸 받아주니까 너만 찾는 거 아냐. 니가 술을 할 줄 아냐, 그렇다고 담배를 피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려구 그래?
 이규 언제까지 계속 하겠어. 본사 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는 거지 뭐.
 명식 이번 본사 발령은 확실한 거야?
 이규 지점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명식 야, 갈 때 가더라도 그딴 또라이들한테 너무 굽신대지 마.
 너, 집에서 기르는 똥개 있지. 똥개도 하- 요 새끼, 요거, 만만한데 싶은 농한테 달려든다, 너!
 이규

이때 울리는 이규의 핸드폰... 이규, 핸드폰을 확인하고 벌떡!

이규 예! 지점장님! 예... 곧 처리하겠습니다! 형! 나 먼저 내려가!

이규, 황망히 옥상을 빠져나간다.

명식 (중얼) 찻찻... 저것도 천성이야, 천성...

이번엔 명식이 벌러덩 드러눕는다.

35. 건물 앞 주차장 (낮/밖)

새로 산 흰색 핸드폰을 손에 쥐 승민,
'이번엔 잘하자! 어떻게든 핸드폰을 받자!'는 생각으로 흠흠... 마음을 진정시킨다.

(직원) 전화가 오면 녹음을 해 뒀다가 증거물로 제출하세요.

통신사 직원의 말대로 녹음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누르는 승민, 통화를 한다.

(E) 여보세요...

승민 아이고 선생님! 마침 받으시네. 전화기를 꺼 났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침엔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감정 많이 상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E) ...반성 좀 했어?

승민 그럼요.

(E) 이거 새로운 전화번호인데?

승민 아~ 예! 제가 좀 급해서 아, 그리고 흑 통화가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E) (목소리 조금 누그러지는) 당신 그거 알아?

승민 뭘... 제가 ?

(E) 당신 전화번호 뒷자리가 내 차 번호랑 똑같은 거. (들뜬) 대단한 인연 아냐 우리!
처음에 번호 보고 깜짝 놀랬다니까.

승민 저기.... 선생님, 제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핸드폰을 좀 빨리 돌려주셨으면...

(E) 돌려 줘야지. 돌려 줘야 되는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승민 뭔데요? 말씀 하세요.

(E) 당신, 와이프 말야, 목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미인이대.

승민 !! (순간 얼굴 일그러지는)... 허... 네... 그런 소리 가끔 들립니다.

(E) 아,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승민 뭔데요?

(E) 당신 와이프, 말하기 전에 '음...' 하고 낮게 소리 낼 때,
그 소리 정말 죽이던데, 침대에서도 좋으면 그래?

아랫입술을 깨물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승민, 올라오는 화를 진정시킨다.

승민 (겨우 겨우 진정시키며) 저기, 선생님... 제가 지금 회의 때문에 통화를 길게 하기가...

(E) 회의? 핸드폰보다 회의가 더 중요하시다? 핸드폰 안 받을 거야?

승민 (어금니를 악 다물며) 그럼, 계속 통화하면 핸드폰 돌려주실 겁니까?

이때, 승민의 귀에 가늘게 들리는 “정주임님! ...”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갑자기 전화기가 뚝- 끊긴다.

황당한 표정을 짓는 승민, 급히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다.

36. 매장 한 켠 (안/낮)

(소리) 정주임님!

상기된 표정의 이규, 여직원1이 이규를 급히 부르고 있다. 이규, 여직원1이 안내하는 데로 따라가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추리닝 차림의 남자, 여직원3와 실랑이 중인 게 보인다.

추리닝 (여직원의 팔을 쿡쿡 찌르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직원3 (눈 똑바로 보며)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주먹을 치켜드는 추리닝 남, 그 앞을 이규가 끼어든다.

이규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말로 하십시오.

추리닝 년 뭐니?

이규 여기 책임잡니다. 저한테 말씀 하시죠.

추리닝 (책임자란 말에 화가 누그러지며) 이 년이 나보고 성추행을 했다, 글썸. 하이고야 세상에! 내가 미쳤냐고!

이규, 옆에 서 있는 여직원을 흘깃 쳐다본다.

여직원3 이 사람이 좀 전에 제 히프를...

이규 (여직원의 말을 가로막으며) 내가 알아서 알게요, 혜원씨! 가서 일 봐요.

추리닝 가긴 어딜가?

추리닝, 잡고 있던 카트를 이규 쪽으로 핵- 앞으로 밀친다.

카트에 옆구리가 스치는 이규, 꽤 아플 텐데 표정 변화 없이 그대로 서 있다.

추리닝 내 빼면 다냐? 이 쌍년아!

(이규를 보며) 너 직원 교육 저따위로 하니까 저것들이 막말하는 거 아냐.

돌아서 가던 여직원3, 더 이상 참기 어렵다는 얼굴로 돌아서더니
츄리닝의 가슴팍으로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다.
“너두 사람이냐, 이 새끼야”, “어라, 이 년 봐라”
엉겨 붙어 싸우는 두 사람을 떼어내는 이규.
어느 틈엔가 달려온 직원(명식포함) 몇몇이 달려붙어 츄리닝을 떼어내고,
이규와 여직원 몇몇이서 울분을 터뜨리는 여직원3을 몸으로 막아선다.

이규 해원씨, 그만해. 뭐하는 짓이야.
여직원3 고객이면 다야? 나 저딴 새끼한테 머리 조아릴 생각 없어.
이규 해원씨, 가서 일보라니깐!
여직원3 놔요, 주임님! 난 주임님처럼 못 살아.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대면서 못 산다구!
이규 (버럭) 누구들 좋아서 이래요!

순간, 주변의 싸한 침묵... 이규 스스로 당황, 눈빛이 떨린다.
여직원 3을 잡았던 이규의 손이 스프르르 풀린다.
그 사이, 츄리닝은 다른 직원들의 제지에 못이기는 척 꼬랑지를 내리고
뒤로 물러선다. 카트를 끌고 저만치 가면서 끝까지 한 마디 내뱉는 츄리닝.

츄리닝 요즘 것들 독해서, 원! 저런 거 낳고도 지 애미는 미역국 먹었을 거 아냐.
하- 씨발...

홀깃 츄리닝 쪽을 쳐다보는 이규의 얼굴에 얼핏 분노가 스친다.

37. 사진 스튜디오 (낮/안)

핑!핑!핑! 연달아 터지는 플래쉬.
여러 개의 조명들이 환하게 켜진 스튜디오.
사진작가(김병춘 분)가 요구하는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스틸 사진을
찍고 있는 진아. “아이 이쁘다. 그래 활짝 활짝, 아 좋다 좋아!”
사진작가가 요구하는 미소를 짓는 진아, 왠지 표정이 무거워 보인다.
“한 번 더 봄날 나비가 날아간다... 날아간다아~” 사진작가 멈칫!
“에이~ 안 날아가네! 좀 쉽시다!”

진아에게 쉬라는 손짓을 하고, 사진작가 스튜디오 밖으로 나간다.
진아에게 물을 건네는 코디.
뒤에서 아까부터 못마땅한 얼굴로 지켜보던 승민, 진아에게 온다.

승민 (낮은 소리로) 너 정말 아까부터 표정이 왜 그래?
왜 진상을 떨고 있냐고? 벌써 피곤한 거야? (코디 보며) 애 어제 몇 시에 잤어?

진아 (경직된 표정) ...실장님!
승민 뭐?
진아 잃어버리신 핸드폰에 그거 들어 있다면서요?

순간 대진이를 흘려보는 승민. 대진, 슬그머니 시선을 떨군다.
애써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보이는 승민.

승민 핸드폰은 이따 돌려받기로 했어. 그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
(핸드폰 울리는 진동음 소리) 딴 생각 말고, 니 하는 거나 열심히 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며)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돌아서며 흘깃 대진을 노려보며 성질나는 걸 꼭 참는 승민, 구석으로 간다.
액정에 뜬 자기 번호다, 녀석이다!
핸드폰을 받으려는데, 깜빡 깜빡 배터리가 다 됐다는 신호.
순간 당황한 승민, 대진에게 급히 손짓하며 입모양으로
'배터리! 배터리'하면서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는다.
승민의 말을 알아들은 대진,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가방에서 배터리를 들고
급히 뛰어와 승민에게 건넨다.

승민 (배터리를 받으며) 여보세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 잠시 갈고
나서...

(이규) 나랑 통화하기 싫으시다?

승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규) 배터리 없는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

승민, 대진에게 충전기 꽂는 시늉을 해 보인다.
의미를 알아들은 대진, 다급하게 어디론가 뛰어간다.

승민 (대진이 뛰어나는 방향 쪽을 살피며) 저어, 제가 아까는 전화가 갑자기 끊어져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힘주어) 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규) 원하는 거?

수화기를 통해 전달되는 잠깐 동안의 침묵...
침묵에 웬지 불안한 표정의 승민...

(이규) 그거였구만!

승민 네?

(이규) 내가 보상이나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핸드폰 돌려 주겠단 사람한테 다짜고짜 성질이나 내고...

승민 아뇨, 선생님. 그게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한 말이 디게 이상해지는데,
그게 아니구요. 거 뭐랄까... 사람이 그럴까요?

물건을 주운 사람한테.. (둘러덜 말이 딱 떠오르지 않고) ..왜 법에두 있잖아요, 10퍼센트가? 암튼 돌려주는 거. 제가 처음에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보상을 원하시면..

(이규) 그러니까... 원하는 걸 말하면 들어 주겠다?

38. 역삼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 (밖/낮)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통화를 하는 젊은 여자.
그 옆으로 핸드폰을 들고 프레임 인 하는 이규, 표정이 미묘하게 바뀐다.

39. 사진 스튜디오 (낮/안)

승민 (بات데리 때문에 초조한) 그럼요. 당근이죠. 핸드폰만 돌려주신다면야...

(이규) 됐어. 보상 받자고 돌려주려는 것도 아니고.

승민 에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보관료라고나 할까요? 핸드폰이 제겐 워낙 귀중한 거라.

(이규) 허긴, 처음엔 성질나서 그냥 확- 쓰레기통에 버리려구 했어.

승민 거보세요! 핸드폰 잃어버리고 못 찾은 사람들 슬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돌려주시려고 전화까지 하셨잖아요.

(이규) 그랬지. 근데... 정말 말하면 들어 줄 건가?

승민 에이 정말, 왜이러실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하세요. 정말이라니까요!

40. 역삼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 (밖/낮)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한다.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는 이규,
소리 없이 열은 미소를 짓는다. 모두 길을 건너자 비로소 입을 떼는 이규.

이규 그럼, 첫 번째 말야,

41. 스튜디오 복도. 소회의실 (안/낮)

(이규) 전화벨이 울리면 “감사합니다. 전 누굽니다” 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받아!

아! 예! 승민, 굽신. 하지만 표정은 몹시 초조, 불안...
통화를 하며 어디론가 미친 듯 뛰어가고 있다.

(이규) 두 번째, 다짜고짜 말 놓지 마. 나 그런 식으로 말 놓는 인간들 제일 싫어!
 승민 아이 선생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리지요...요. 진짜로 원하시는 걸 말씀하셔야죠.
 (이규) 진짜로 원하는 거?
 승민 네, 진짜로 원하는 거요.
 (이규) 진짜로 원하는 거는...거 참, 좀 말하기 곤란한데...
 승민 괜찮습니다, 얼른 말씀해 보세요.
 (이규) 에이, 그만하지, 내가 괜히 부담 주는 거 같네.
 승민 (신경이 곤두서 입술을 달싹인다) 아니라니깐요!!
 저, 책임지지 못할 말은 내뱉지도 않는 놈입니다.
 어서 말씀해 보세요. (거의 고향수준) 어서요!!!

깜빡깜빡 점멸하는 배터리. 승민의 얼굴에 초조함이 만땅!!!
 복도 끝 열린 문 앞에서 대진이 이쪽이라며 손짓한다.
 급히 회의실로 뛰어 들어가는 승민.
 회의실 바닥에 꽂아 놓은 충전기 코드를 핸드폰에 끼우는 승민,

(이규) 그럼, 세 번째는...
 승민 (휴우! 비로소 안도하며) 네, 세 번째는요...

수화기 너머로 들린 세 번째 요구에 승민의 얼굴, 갑자기 번민에 사로잡힌다.
 대진, 왜? 하는 얼굴로 승민을 쳐다보는데,

승민 (확인받듯) 대신 핸드폰은 바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42. 역삼역 사거리 너머 병원앞 (밖/낮)

열은 미소와 함께 핸드폰 플립을 닫는 이규,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는데 지나가던 사람과 어깨를 부딪치는 이규.
 각듯이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울리는 핸드폰 소리.
 이규, 다른 쪽 주머니에서 본인의 은색 핸드폰을 꺼낸다.

(여동생) 오빠, 어디야?
 이규 응. 다 왔어.
 (여동생) 빨리 와. 엄마 깨어났어.
 이규 수술은?
 (여동생) 그럭저럭... 근데 또 할 수도 있대.
 이규

다시 무거운 표정의 이규, 잠시 병원을 올려다 보다 들어간다.

43. 병원 (안/밤)

이규가 병실로 들어선다. 가슴기예산 연신 김을 뿜어내고...
산소 호흡기에 빼만 앙상한 초로의 여자가 반쯤 동공이 풀린 채
(머리가 반쯤 깎이고 붕대를 두른채) 죽은 듯 침대에 누워있다. 한쪽에 앉아있던
지독히 치장한 여자(여동생)가 이규를 맞는다.

여동생 왔어!

이규, 대꾸 없이 침대맡으로 다가간다.

이규

44. 어느 빌딩 앞 (낮/밖)

빌딩 어느 주차장... 이내 화면 안으로 어슬렁 들고나갈 반복하는 승민,
뭔가 고민스런... 잠시 후 주위를 한번 휘익- 돌아보더니,
갑자기 장갑 낀 손으로 야구 방망이를 높이 치켜 올린다.

쩍쩍 갈라지는 차 유리. 순식간에 차를 엉망으로 만든 승민,
방망이를 내팽개치고 정신 나간 놈처럼 핸드폰을 꺼내 망가진 차를 찍는다.

빌딩 안에서 이를 발견한 관리자가 급히 뛰어나온다.
그 길로 도망치는 승민.

45. 어느 골목 차 안 (낮/밖)

헉헉 숨을 들이쉬며 승민이 핸드폰을 꺼내 든다.
“고객님의 전화가 꺼져 있어 음성으로 연결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승민.

승민 (헉-헉거리며 말로) 사진 보낸다. 이 씹새끼야!

하지만 문자는 대단히 공손하다 <사진 보내 드립니다>
오랜 만에 뛰어서 그런지 가슴이 쓰리다.
인상을 쓰며 사진을 전송하는 승민, 주위를 경계하며 기어를 푼다.
시동을 켜고 급출발하는 승민의 차.

46. 빌딩 앞 (낮/밖)

영망이 된 차. 관리인이 안절부절...
그 앞에서 열이 받쳐 악을 쓰며 발을 동동 구르는 츠리닝 남 (썸40의 성추행남).

47. 호텔 결혼식 연회장 입구 (안/낮)

커다란 화환들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호텔 결혼식 연회장.
'축 결혼! ○○○ 픽쳐스 대표 000' '축 결혼! ** 필름 대표 ***'
요란한 화환들, 그것들에 적힌 문구들로 보아 영화인의 결혼식으로 짐작되어 진다.

연회장 앞에는 신랑 신부 부모들이 손님을 맞고,
손님들 중에는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최사장(썸5 참조)도 얼핏 보인다.

연회장 입구의 요란한 화환들, 카메라 옆으로 쪽- 따라가다 보면,
입구 한 구석. 승민 옆에 서서 시나리오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봉만대감독이 보인다. 승민, 난처한 얼굴로 연신 이마를 긁는다.

감독 이 정도가 노출이냐 오실장? 아니 오대표?
승민 (답답한) 청순한 이미지로 뜯 애한테 이거 거의 누드 수준이에요.
토탈 3분이래두, 초반 1분 강도가 너무 썸.

이때 승민의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전화....

승민 아이고! 최피디님! 그럼요, 제가 잠시 핸드폰을 잃어버려 그만 실례를...
예? 언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던 봉감독,

감독 오대표야. 여배우 청순한 거 얼마나 갈 거 같냐? 여배우는 모름지기 섹쉬야.
승민 나두 알아, 아는데... (다급해서) 형! 청순한 이미지로 가는 애를
첫 영화 출연부터 벗기는 건...

이때 다시 울리는 승민의 핸드폰. 액정 화면에 뜬 번호, 녀석이다.
승민, 감독에게 손을 들어 미안하단 표정을 지으며
급히 핸드폰을 들고 저만치 사라진다.

감독 (심통 난) 아이고야! 진아가 뜨긴 똥구나. 핸드폰이 쉬질 않네.

48. 연회장 일각 (밖/낮)

층과 층을 연결시킨 계단 난간, 승민이 통화 중이다.
가끔씩 연회장 입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손님들이 승민 옆을 스쳐간다.

승민 (주위를 의식해 소리를 누르며) 말이 틀리잖습니까.

(이규) 세 번째가 마지막이라고는 하지 않았잖아.

승민 (단호한) 더 이상은 안돼요!!

(이규) 안된다구?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한 건 당신이야!

싸가지 없는 녀석의 목소리에 울컥 치미는 승민, 이를 악물며 핸드폰을 노려본다.

승민 (뺨치는 화를 누르며) 그건 제가 돈을 조금 드리겠다는...

이규 핸드폰에 재미난 동영상이 있던데, 이거 인터넷에 한 번 올려 볼까?

당신 핸드폰에 있는 애, 누구야? 배우 같은데...

헉! 누가 들을까 주위를 경계하며 둘러보는 승민.

마침 길을 잘못 찾은 젊은 연인 한 쌍이 승민의 옆을 지나간다.

애써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지켜보다가 입을 여는 승민.

승민 (이를 갈며) 야이 씨발아!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두 가만 안 있어.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돌려 줘. 니 말 다 녹음됐어. 알아?

경찰에 신고하면 넌 그냥 콩밥감이야, 콩밥!

나 지금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알아?

(이규) 기회? 그 반대 아닌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건지 잘 생각해봐.

툑! 끊기는 전화... 승민, 갇은 욕설과 함께 폭발하고,
화들짝 놀란 몇몇 손님들, 빠르게 종종 걸음으로 사라진다.

49. 병원 진료실 (안/낮)

진찰실 침대에 눕는 정연, 천장을 올려다본다.

빛을 발하는 형광등. 진찰실 옆에 놓인 정연의 핸드백에 위-잉, 메시지가 울린다.

홀깃 가방 쪽을 바라보는 정연,

이때 '다 댜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진찰실의 커튼을 획 친다.

50. 병원 복도 (안/낮)

핸드백을 든 채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정연,

정연 (핸드폰을 받으며) 어? 엄마. 밖이라 전화 못 받았어. 왜요?
(놀라서 순간 표정이 굳어진다) 죽다니, 누가?

정연, 너무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핸드백을 툭- 떨어뜨린다.

51. 결혼 연회장 (안/낮)

사회자 자, 이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결혼 행진곡에 맞춰 신부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장내 한쪽에서 웅성웅성 거린다.
신부를 쳐다보아야 할 식장의 하객들 일부가 병진 표정으로
연회장으로 이제 막 들어와 테이블에 앉으려는 승민을 바라본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부담스러워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승민.

승민 (어색하게 웃으며) 어... 다들 왜 이래?

이때 승민의 호주머니에서 위-잉 울리는 핸드폰.
아내 정연의 번호다. 승민, 몸을 돌려 하객들의 시선을 뒤로 한채 핸드폰을 받는다.

(정연) (버럭)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승민 (목소리 낮추며) 내가 뭘?

(정연) 죽었다!

승민 ?? 누가???

52. 병원 로비 (안/낮)

정연 (안도감과 짜증이 뒤섞여) 누구긴 누구야, 당신이지.

승민 (병진) 내가?

정연 그래. 당신 핸드폰 번호로 지금 부고가 돌아. 당신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확인 전화 오고 난리 났어.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심장 오그라 드는 거 같아 정말. 핸드폰 아직 정지 안 시켰어?
왜 그딴 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 바보같이!

53. 결혼식 연회장 (낮/안)

승민, 이게 뭐 소리인가 싶어 떨떠름한 얼굴로 힐끗힐끗 자신을 보는 주의 시선을 의식하며,

승민 내가... 죽었다고?

이때 승민 눈에 두리번거리며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최사장 똥마니가 보인다.
승민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감...

54. 결혼 연회식 주차장 (낮/밖)

쿵- 둔중한 충격과 함께 차에 몸을 심하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승민.
쓰러진 승민의 앞으로 걸어오는 구둑발, 최사장이자.

최사장 야~ 천하의 오승민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애도 아니고.
문자하나 날리고 콩지 빼면 내가 그러려니 하고 믿을 줄 안 거야?
승민 (터진 입술을 가까스로 떼며) 아뇨, 뭔가 오해가...

느닷없이 승민의 옆구리를 냅다 걷어차는 최사장.
욱! 하면서 몸을 새우처럼 구부리는 승민의 앞에 쭈그려 앉는 최사장,
자기 핸드폰을 승민의 코 앞에 들이밀고, 또박또박 읽어준다.

<오승민. 9월 29일 14시 교통 사고로 사망. 생심 병인 영안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본 승민,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인상을 찌푸린다.

승민 이걸, 이걸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내 핸드폰 주운 놈이 장난 치는 거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욕이 터져 나온다) 씨발...
새 핸드폰은 여기 있다고!!

CUT TO

양손에 핸드폰을 쥐고 시골 할배뎡새로 쭈그리고 앉아 승민 핸드폰에 자기 번호를 누르는 최사장. 최사장의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린다.
다른 전화번호가 찍힌다. 탁- 플립을 끄고 핸드폰을 아무렇게나 던지는 최사장.
승민, 공중에서 떨어지는 핸드폰을 간신히 받는다.

최사장 핸드폰 바꿨으면 즉시 연락하든지 해야지, 그래야 오해가 없지 안 그래?
열흘하고 이틀 남았다!

말을 마치고 유유히 똥마니들과 주차장을 나가는 최사장.
쓰러진 승민, 신음처럼 “이 썩새끼! 정말 가만 안뒤” 욕을 뱉어낸다.

55. 골목 (낮/안)

후미진 골목, 낡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승민이 걸어온다.
어느 건물 앞에 서는 승민, 흘깃 건물을 올려다본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56. 건물 복도 (낮/안)

<신성 심부름 센타>
조악한 글자로 씌어진 '힘들고 어려운 일 상담 환영' 플랭카드.

57. 사무실 안 (낮/안)

지저분하고 어둑어둑한 사무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장비들, 책상 위의 모니터 앞에 등을 보이고 앉은 센타남1.
모니터 위에 GPS 지도가 떠 있다.
그 뒤로 센타남2와 승민이 소파에 앉아 얘기 중이다.

센타2 다행이네요, 잃어버리신 핸드폰이 PDA 폰이라면. 위치 추적 가능합니다.

센타남1,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려 보더니 흘깃 뒤로 고개를 돌린다.

센타1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꺼져 있으면 추적이 안 되는데.

승민 (얼굴 일그러지는) 꺼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센타2 위치 추적이라는 게 말이죠, 위성에서 쏘서 단말기 위치를 알아내는 건데,
꺼져 있으면 제 아무리 귀신이라두 소용없죠. 아주 제대루 걸리셨네.

승민 (이를 갈며) 여우같은 새끼...

센타2 일단 전화를 가진 상대가 전화를 켜야 됩니다. 상대가 가진 핸드폰을 키면
게임은 바~로 끝나요. 한 마디로, 손에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죠.

승민,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든다.

잠깐 동안 망설임...

승민, 인상을 찌푸리며 녀석이 가진 자기 핸드폰 번호에 문자를 보낸다.

<저기 죄송한데, 원하시는 거...>

58. 올림픽 공원 안 (낮/오후)

잔잔하게 잔물결이 치는 호수가.
일요일 오후, 공원 안은 바람을 쐬러 나온 가족들,
운동을 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이다.

저만치 운동복 차림으로 조깅을 하는 초로의 노인.
잠시 뒤 노인 뒤로 양복차림에 구두를 신고 뛰어오는 승민이 보인다
노인 옆으로 가 보폭을 맞추는 승민.
옆에서 달리는 승민을 흘깃 쳐다보는 노인, 신경질적인 인상이다.

승민 **저, 장종호 선생님이세요?**
노인 (가래가 끓는 듯 탁하고 거친 목소리) **그래, 내가 장종호인데 왜?**
승민 **진짜, 장종호 선생님 맞으세요?**
노인 **(짜증스러워 걸음을 멈추며) 그렇다니까 내가 장종....**

그 순간 펑- 노인의 얼굴에 승민의 주먹이 날아온다.
발로 차고... 지근지근 밟고... 정신없이 두들겨 패는 승민.
“어머, 어머, 왜 저래?”, “저기 좀 봐, 어떡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탄성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만
승민의 광분에 감히 다가가지 못한다.
피투성이가 된 노인의 멱살을 잡아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데,
이때 울리는 핸드폰.

승민, 노인의 멱살을 놓고 호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낸다.
바닥으로 푹 쓰러지는 노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승민, 핸드폰 플립을 연다.

승민 **(신경이 곤두선) 됐냐? 됐냐고! (헉! 헉!) 더 이상은 안 돼!**
(이규) **비쳐봐.**

승민, 획 비쳐주면,

(이규) **(반색) 맞네, 청소기 영감...**
승민 **(전화기에 대고 소리치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내 핸드폰 내 놔!**
(이규) **그래, 핸드폰 돌려 주지.**
(센타2)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때, 승민의 귀에 꽂은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소리.
순간 긴장하는 승민, 주위를 둘러본다. 급박한 음악도 함께
(지금부터는 두 장소가 분할 화면으로 보여지는 동시다발적 상황)

CUT TO 심부름 센타 사무실 안

모니터에 깜빡깜빡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빠르게 자판을 두드리는 센타남1.
그 옆에 스탠드 마이크에 대고 상황을 설명하는 센타남2.

CUT TO 호수 공원 안

승민 어디서 만나?
(이규) 공원 끝 지형물로 와.

공원 끝에 보이는 지형물!
녀석이 주위에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승민, 바짝 긴장한다.

(소리) 전방 1킬로 이내, 당신 쪽으로 녀석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때 반대편 조깅로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달려온다.

CUT TO 심부름 센타 사무실 안

모니터 속 깜빡거리는 불빛이 승민의 위치를 스쳐간다.

센타2 (흥분하는) 녀석이 당신 옆을 지나가고 있다구요!

CUT TO 조깅로

더불어 흥분하는 승민. 승민 옆을 지나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
순간, 몸을 획- 돌리는 승민, 달려가는 무리 속으로 뛰어든다.
미친 놈처럼 사람들의 몸을 잡아끌어 호주머니를 뒤지는 승민.
“뭐야?” ‘왜 이래요?’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불만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승민, 필사적이다.

이때, 조깅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승민의 옆을 스쳐가는 이규.
남의 일 구경하듯 흘깃흘깃 쳐다보며 지나간다.

(센타2) 바로 앞입니다! 지금 지나갔어요!!

순간, 앞으로 시선을 돌리는 승민, 번쩍 몸을 날린다.
아악~ 여자의 비명 소리와 함께 화면 아웃.

59. 경찰서 (밖/저녁)

경찰서 문을 열며 나오는 승민.
그 뒤로 나오는 여자와 그의 남편에게 꾸벅꾸벅 사죄의 인사를 한다.
남편, 승민을 야리고는 아내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간다.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고 짜증이 나는지
팬스레 머리를 손으로 헝클어뜨리는 승민, 한숨을 길게 내쉰다.

60. 도로. 달리는 차 안 (밖/저녁)

운전 중인 승민, 끈두선 얼굴로 담배를 찾아 입에 문다.
이때 걸려오는 전화..... 녀석이다! 황급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는 승민,

(이규) (심상찮은 목소리) 뭐하는 수작이야?

승민 (신음처럼 터져 나오는) 씨발...

(이규) 그게 잃어버린 물건 돌려받겠단 사람 말투야?

승민 (울컥 목까지 매여) 야, 너 정말... (울컥, 목소리까지 떨리고) 계속 이런 식이면...

(이규) (차분해지는데) 나, 참... 계속 이런 식이면! 뭐?

정말 돌려 줄려고 그랬는데, 계속 전화를 이따위로 받으니...쫓쫓...

(안스럽다는듯) 니 같은 거 낳고도 니 애미는 미역국 먹었을 거 아냐.

승민 (폭발하는) 뭐야? 이 개새끼야!

갑자기 뚜- 끊기는 전화소리.
벌벌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를 거는 승민,

이때 차 창 밖으로 승민의 차를 옆으로 세우라는 신호를 하는 교통경찰이 보인다.
짜증에 미간을 찌푸리는 승민.

CUT TO

승민의 차 옆으로 오는 교통경찰.

승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한 전화라서요.

경찰 급하면 차를 세우고 통화를 하셔야지. 면허증 제시해 주세요.

승민 저어, 한번만 봐주세요.

경찰 면허증 제시하세요.

지갑에서 돈을 꺼내 슬쩍 건네는 승민.
경찰, 달랑 만원짜리 지폐를 보고 어이없어 웃는다.
이때 울리는 핸드폰. 승민, 핸드폰을 받으며 차창 유리를 올린다.
창 밖의 경찰은 돈을 돌려주려 문을 두드리는데.

승민 어, 왜? (무겁게 굳는) 뭐?!

61. 어느 PC방 안 (밖/저녁)

어두침침한 PC방 전경... 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고딩 하나가 갑자기 반색한다. 고딩 몇몇이 올망졸망 모여든다.
PC안 뭔가하고 다 같이 쳐다본다. 모니터에 떠있는 윤진아의 섹스 동영상...
(남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되었고 진아의 얼굴만 선명하게 나타난다.)
고딩들 술렁술렁...

고딩1 앗싸! 대박! 야! 너 USB 줘봐! 카피하게.

나도..나도... 애들이 부산하다. 동영상 밑으로 빠르게 올라오는 댓글들.
한편 구석자리... 그런 댓글들을 보며 만족한 듯 웃고 있는 한사람, 윤호다...
얼굴에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있는 윤호, 야비한 미소와 함께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딸각! 수화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윤호 굿바이다! 이 씨발 새끼야!!!

윤호, 빠르게 컴퓨터에 꽂은 비디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62. 기획사 사무실 (안/저녁)

문 앞에 우글거리는 기자들.
사무실로 들어오려는 기자들을 대진이가 온 몸으로 막고 섰다.
밖에서는 계속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터져 나오고,
사무실 구석에선 윤진아가 울고불고,
코디, 로드 매니저, 다들 울먹울먹.... 한마디로 줄초상 분위기다.
승민은 쏟아지는 전화를 받느라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승민 짝퉁이라니까. 애들이 장난으로 만든 거라구.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있었겠어? 뭐? 김기자! 김기자!
(신경질적으로 플립을 닫으며) 개새끼. 좆을 맨 형 아우고...

이어 울리는 책상 위 전화기.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 표정으로 승민, 수화기를 집어 든다.

승민 (애써 밝은) 아, 최피디님! 에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 장난이예요...!
(얼굴 굳어지는) 무슨 말씀이세요... 없었던 거로 하자니요?
(울컥) 동영상 그거 짝퉁이래니까, 왜 사람을 못 믿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승민, 어금니를 깨물며 겨우 겨우 견디어내다,
악에 바쳐 갑자기 전화기로 책상을 내리치는 승민.
자제하고 참으려다 또 다시 전화기를 집어 내리친다.
터벅터벅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승민,
문 밖으로 나오자 우르르 기자들이 몰려든다.
승민,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들을 뿌리치며 계단을 내려간다.
기자 하나가 악착같이 따라붙으며 승민의 어깨를 잡아챈다.
책- 돌아보는 승민, 물기 어린 눈에 살기마저 감돈다.
움짤 뒤로 물러나는 기자. 승민, 황황히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위로 차분하고 감상적인 음악이 흘러 나온다.
(Because I love you, Girl - The stylistics 같은 류의)

63. 역삼동 커피숍 (안/밤) - 음악 계속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어느 커피숍 안.
벽쪽에 설치된 모니터에선 <Y양 동영상 파문>이라는 어느 케이블 연예TV 뉴스가 방영되고 있고, 일단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수군수군... 한편으론 관심 없다는 듯 자신들의 대화에 열중한 사람들... 사람들의 웅성웅성 떠드는 소음 속에 카메라 계속 타고 들어가면, (썸12에서 승민이 앉았던)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듣고 있는 이규, (마치 외따로 떨어진 섬 같은 느낌)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전화통화에 열중하며 바빠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문득 테이블에 놓인 이규의 승민핸드폰이 연신 진동으로 울려댄다.
승민의 전화번호다.

이규

이규, 천천히 시선을 돌려, 동영상 파문 뉴스를 담담히 지켜보다, 이내 진동하는 핸드폰을 들고 일어선다.

64. 화장실 안(안/밤)

세면대에서 무심히 세수를 하는 이규...
이규, 세수를 마치고 미련 없이 휴지통에 승민의 핸드폰을 버리려는데,
위잉~ 문득 낯선 문자 메시지 하나... 이규, 무심히 펼쳐보면,

<음성남경도 연락 없어서 문자 띄웁니다. 처리 부탁하신 건 문제 발생, 조속히 연락바랍니다. >

이규 ???!

65. 경찰서 (안/밤)

시끌벅적한 민원 대기실... 승민이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잔뜩 굳은 표정으로 다리만 달달달.... 문득 승민의 핸드폰에 진동, 자신이 분실한 핸드폰 번호다. 승민, 떨던 다리를 멈추고, 다짜고짜 핸드폰을 치켜들며,

승민 이 좇같은 새끼야! 사람 피 말리며 노니까 좋았어!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바로 경찰서다!! 이 씨발 새끼야!
(이규) 욕 좀 그만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안 그래?
승민 (신음처럼 내뿜는) 개새끼... 니가 지금까지 한 짓거리 다 녹음되 있어.
그리고 핸드폰 정지시킬 테니까 그거 갖구 딸딸이나 치면서 실컷 놀아,
이 또라이 새끼야!

승민, 핸드폰을 냅다 닫으며, 민원창구에 대뜸!

승민 사건 접수 아직 멀었어요!
민원경찰 좀 기다리세요! 여기 바쁜 거 안보여요?
승민 (지지않고) 아! 어떤 새끼가 자꾸 내 핸드폰으로...

위잉-, 문득 승민의 핸드폰이 다시 울린다. 낯선 번호...
고개를 가웃 전화를 받는 승민, 전화기에서 녀석의 음성이 들린다.

이규 나야.
승민 (싸늘하게 웃는) 왜? 신고한다니까 겁은 나나 보지? 내 핸드폰은 어따 두고,
다른 전화로 뺏소야?
(이규) 이 좋은 걸루 딸딸이만 치긴 좀 아까워서.
그동안 돌려 달라고 징징대던 데... 다른 이유 있었지?
승민 이유는 개뿔, 더 이상 이유 없어. 끊어, 씹씩까!
(이규) 글썸... 그럴까? 방금 핸드폰으로 재미난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승민 좇까지 마.

어깃장 놓으며 욕을 내뿜었지만 승민, 웬지 모를 불안감이 스친다.

(이규) 처리 부탁하신 건 문제가 생겼데? 그게... 과연 뭘까?
승민 (목소리 낮추며 힘주어) 문제는 무슨 문제, 씹씩까!! 나 그딴 거 없어.
(이규) 그래? 뭐 음성도 남겨놨다니까 확인해보면 알겠지. 무슨 문제지..

승민 (표정 굳는)... (이내 싸늘한 미소) 알려줘서 고맙다.
그런 내가 직접 들고 바로 지우도록 하지.
(이규) 근데 이거 어찌나? 핸드폰 기능이 아주 좋아. 마이폴더로 자동 저장되던데...
이 핸드폰에 있는 거 까지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승민 (표정 일그러지는).....
(이규) 그리고 알아서 해.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특- 전화가 끊긴다. 뭔가 공황 상태에 빠진 승민, 멍한 표정으로 플립을 닫는데...
이때 민원창구 쪽에서 들리는,

경찰 거기요! 이제 사건 접수하세요!
승민

승민, 뉘나간 표정으로 대꾸도 없이 쓰윽 뒤돌아 사라지는데,

경찰 이봐요! 접수 안할 거예요?

승민, 펜스레 썩은 미소만, 이내 뒤돌아서 잔뜩 구겨진 표정 지으며
민원실을 나서는데....

CUT TO

경찰서 밖, 승민, 초조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면, 음성비밀번호를 눌러달라는
메시지... 승민, 빠르게 비번을 누르고... 경찰차들이 분주히 승민곁을 지나간다.
승민, 점차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66. 방송국 음향실 (안/밤)

커다란 스피커...큼직한 디머기.... 낮익은 풍경... 음향실이다.
거기서 이규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터져 나오고 있다.

(이규) 핸드폰 안 받을 거야? 회의? 핸드폰보다 회의가 더 중요해?
(승민) (어금니를 악 물며) 지금 통화하면 핸드폰 돌려주실 겁니까?

오디오 기기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승민과 기택이 보인다.
특히 신경이 곤두선 채로 스피커로 확장된 소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승민.

(이규) 핸드폰에 재미난 동영상 있던데, 이거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까?
당신 핸드폰에 있는 애, 누구야? 배우 같은데....

기택 (걱정스런)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냐?

승민 (눈밀이 바르르 떨리는) 이 새끼 한시라도 빨리 내 손으로 직접 잡아야 돼.
이걸루 이 새끼가 어디서 뭐하는 놈인지 알 수 없을까?
기택 여기가 할리우드도 아니구... (승민 보며) 위치 추적해봐! 위치 추적하면...
승민 해 봤어. 이 새끼, 사당, 올림픽 공원... 종잡을 수가 없어.
기택 핸드폰 잃어버린 데가 어디야?
승민 역삼동.
기택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스러운 표정의 기택, 썩한 얼굴의 승민을 본다.
이때 걸려오는 승민의 핸드폰... 아내 정연이다.

승민 어. 왜? (짜증스런) 야! 김정연! 제발 좀 봐주라. 너도 지금 상황 뻔히 알잖아.
(다소 언성높여) 대체 할 얘기란 게 뭔데? 전화로 하면 안 돼?

이때 스피커에서는 이규와의 통화 내용이 계속 들려오고..

(이규) 전화를 이따위로 받으면서 핸드폰을 찾길 바래?
너 같은 거 낳고도 니 애미는 미역국을 먹었을 거 아냐 쫓쫓.

승민 (저도 모르게 토해내는) 씨발... (그러다 화들짝) 아냐, 아냐, 너한테
그런 거 아냐. 너한테 그런 게 아니라니깐! 야!야!야! 김정연!!!

전화 끊기고 승민은 거의 울 듯한...
이때 문득 긴장감이 감도는 기택의 얼굴.

기택 잠깐만!

오디오, 재빨리 스탑 버튼을 누르는 손.
한껏 올렸던 볼륨 스위치를 밀어서 내리고 다른 스위치를 위로 올린다.

(E) 정주임님!

승민 정주임??!

기택 그 자식 부르는 말 같기도 하고, 그냥 주변 소리가 섞인 것일 수도 있구...

승민, 긴장된 얼굴로 기택을 본다.

승민 주임? 주임이란 직함 쓰는 데가 어딴지?
기택 요즘 주임이란 말 쓰는데 별루 없잖아.
여행사나 뭐 대형서점 같은 데서 쓰는 말 아냐?

녹음된 소리를 반복해서 들어보는 두 사람, 소리에 온 집중을 다 한다.

그 위로 사운드 선행... 정주임님! 정주임님!

67. 마트 직원 사무실 (안/밤)

“정주임님! 빨리 1층으로, 1층으로 와 주세요”

이규, PC앞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하다, 급히 고개를 돌리면,
치지직- 치지직-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자신을 찾는 소리.
‘또 시작이군...’ 싶은 얼굴로 이규, 마트 쪽으로 뛰어간다.

이규가 떠난 자리, PC화면엔 <핸드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란 질문과 답글로 올려진 몇몇댓글들...

<핸드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군요. 저도 그래서 되게 고생했는데 ㅏ ㅏ 그럼 답변해드릴게요.

민중들고 통신사 방문 대리점 절대 뇌 간단하죠?>

<핸드폰 배터리를 빼시면요, 모델명이라 써있잖아요. 그아래 보시면요. 상담실 전화번호가
나와있을꺼예요 아마 자세하게 알려줄텐데... ^^ 부족한 답변 죄송합니다 ㅏ ㅏ >

<0000부터 9999까지 끈기있게 조합해보시죠. 그게 최강입니다> 더불어 난수표 같은
네자리 숫자들이 가득 화면에 차있고...

68. 마트 1층 에스컬레이터 (안/낮)

아수라장으로 변해있는 1층 에스컬레이터 근처. 119 소방관들까지 와있다.

“순희야!~순희야!~” “글쎄, 저희들이 찾아 드린 대니까요”

아랑곳 않는 순희 찾는 소리, 덕분에 매장은 엉망이다.

이규 무슨 일이에요?

여직원2 개를 잃어버렸데요.

이규 뭐?

여직원2 (별일이 다있다는 듯) 애완견이라고 그러는데...

(주먹까지 쥐어 내 보이며) 요만한, 쥐방울만한 개래요.

이규

여직원2 뻔뻔히 손을 내리고.. 119 소방관들도 다소 난감한 표정...
여기저기 찾아보곤 있다. 이규, 들썩거리는 기저귀들 쪽으로 가보면
한 남자(약사)의 엉덩이만 셀룩셀룩.

이규 (고개를 숙여 부른다) 저기 고객님! 고객님!!

획! 돌아다보는 약사(최주봉 분),

약사 찾았어??
 이규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 드릴 테니 진정 좀 하시죠.
 약사 (버럭) 어떻게 진정해! 자식 같은 개를 잃어버렸는데!!
 이규 고객님, 자식 같은 동물이라도 동물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애완견은 원래 매장 출입이 금...
 약사 뭐야! 너 그 애가 얼마짜린 줄이나 알어?
 매장이나 도는 니들 월급으로는 사지도 못해. 순희야~ 아이고 순희야~!

중년남의 마지막 말이 이규의 명치를 쿡 찢러 온다.
 인내심을 갖고 애써 미소를 지어보이는 이규.

이규 고객님, 일단은... 일하는 매장인데 여기서 이러지 마시구요,

약사의 팔을 잡아 끌어내는 이규, “됐어. 됐다니까!” 하며 팔을 빼는 중년남
 손에 낀 반지가 이규의 얼굴을 스친다.
 칼로 벤 듯 뺨 한 쪽에 가늘게 베어 나오는 빨간 피!!!
 어머! 직원들이 놀란다. 순간 동작을 멈추며 겸연쩍은 표정을 짓는 중년남.
 이규, 천천히 뺨에 손을 갖다 댄다.
 손에 묻은 피를 잠시 바라보는 이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약사를 일으켜 세운다.

이규 (담담하게) 순희를 어디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약사 저기 내 마누라, 저기 내 마누라 품에서 갑자기 튀어나갔어.

사람들 사이에 인상을 쓰고 있는 뚱뚱한 중년여자가 보인다.
 이규, 기저귀 코너 옆 애완견 먹이코너로 가본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여
 진열대 밑 뭔가를 꺼내는데... 쥐방지용 쥐 철책이 보인다. 그 안에 정말 쥐방울만
 한 치와와 한 마리가 간헐 뽀뽀거리고 있다. 이규, 조심스럽게 개를 꺼내는데,
 어느 틈엔가 약사 다가와 핵! 하고 낚아채 간다.

약사 (너스레) 쥐,쥐약? 쥐약 같은 건 안 먹었으니까? 어?
 이규 걱정 마십시오. 그냥 철책만 쳐...
 약사부인 (다가와 남편에게서 개를 채가며) 그러게 왜 이런 허접스런 마트를 오자고
 한 거야?! 이래서 백화점을 가야 된단니까!

중년의 약사부인, 종알종알... 남편과 함께 매장을 빠져나간다.
 “정주임님 괜찮아요.” 여직원2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이규의 무표정한 얼굴... 얼굴에서 다시 빨간 피가 배어나온다.

이규 ...

다소 분노서린 이규의 얼굴위로 사운드 선형.

(이규) 다짜고짜 말 놓지 마! 나 그딴 식으로 말 놓는 인간들 제일 싫어!

69. 방송국 음향실 (안/밤)

(승민) 아이 선생님,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들어드리지...요. 진짜로 원하시는 걸 말씀하셔야죠.

(이규) 진짜로 원하는 거?

여전히 전화대화를 토해내고 있는 스피커...

(승민) 네, 진짜로 원하는 거요.

(이규) 진짜로 원하는 거는 좀 말하기 곤란한데...

그럼 말야... 누구 손 좀 봐줘. (거리에 잔 소음이 배경에 깔려있다.)

음향실 창문으로 열린 여명이 비춰 온다.

책상 위에 먹다 남은 햄버거 껍데기, 그리고 콜라 캔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기택은 입을 짝 벌리며 하품을 하다 승민을 보고 얼른 입을 가린다.

눈이 벌겍게 충혈된 승민,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일어선 채 신경이 곤두선 모습이다.

기택 아무래도 무리다. 신고하자, 승민아!

고개를 저으며 대꾸 없이 스튜디오를 나가려 부스스 몸을 돌리는 승민.

기택 (나가는 승민 등에 대고)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전화해. 응?

승민, 답답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간다.

70. 승민의 집 (안/새벽)

승민이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선다.

거실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TV를 보고 있는 정연이 보인다.

승민 안 잤어?

정연

승민, 대꾸 없음에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툭! 하고 꺼지는 TV 소리...

정연 애기 좀 해.
승민 정연아. 나 지금 정말 무지 피곤해.
정연 (다짜고짜) 우리 헤어져.
승민 (우표정) ...

승민, 묵묵부답,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정연, 안방으로 쫓아온다. 문이 잠겼다.

정연 (문을 광광광) 헤어지자고!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안에서 비로소 한마디,

승민 ...이유가 뭔데?
정연 (다시 광광광) 문 열어! 어서! 얼굴 보면서 말해.

덜컹, 문이 열린다. 승민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마주선 두사람....

승민 헤어지는 건...절대 안돼. 나 나갔다 올게.
정연 ...알고 있었지?
승민
정연 내 핸드폰이라도 뒤졌니?

승민, 그냥 무시하며 나간다. 정연이 소리친다.

정연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런 거지? 이 나쁜 새끼야!
승민
정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거니?!!

승민, 대꾸 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 버린다.

71. 강남 KT 전화지국. 사무실 안 (아침/밖)

쭈그린 채 앉아 뚫어져라 앞을 응시하고 있는 승민의 눈이 더욱 쾅해졌다.
셔터 문이 굳게 내려진 전화국 앞.
잠시 뒤 청원 경찰 차림의 경비가 셔터 문을 드르륵- 올린다.
셔터 올리는 소리에 눈을 뜨는 승민, 경비를 따라 전화국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려 준비하는 직원들, 승민을 일제히 쳐다본다.
시선들 무시하고 터벅터벅 자료대로 가는 승민,
자료대 위에 전시된 전화번호부를 하나하나 들춘다.
직원들 뭔가하고 계속 쳐다보고, 이내 직원 데스크로 가는 승민.

승민 역삼동 일대 상가 전화번호부, ...좀 주세요.

72. 승민의 기획사 사무실 (안/낮)

혼자 앉아 있는 승민, 책상 위에 전화번호부를 펼쳐 놓고 통화 중이다.

(소리) 안녕하세요? OO 여행사입니다.

승민 네, 정주임님 부탁드립니다.

(소리) 정주임님이요? 그런 분 안계시는데요.

승민 거기 백화점이죠? 정주임님 계십니까?

(소리) 저흰 주임이란 직함이 없는데요.

승민 강남 서적이죠, 정주임님 계십니까?

(소리) 정주임님이요? 잠시만요.

긴장하는 승민, 호흡을 가다듬느라 눈을 깊게 감았다 뜬다.

(소리) 네, 여보세요?

승민 (침을 꿀꺽 삼키는) 정주임님이세요?

(소리) 네, 제 이름이 정주임인데요, 누구세요?

승민 아? (전혀 다른 목소리다) 아... 죄송합니다.

지루하게 이루어지는 승민의 전화.

(시간 경과)

전화번호부 위에 빼곡하게 적힌 전화번호.

콕-콕- 그어진 밑줄, 이제 몇 개 안 남았다.

잠시 수화기를 내려놓는 승민, 속이 타는지 냉장고를 가 생수병을 집어 들고

벌컥벌컥 들이킨다. 그러다 문득! 책상 한쪽 시선고정... 천천히 다가간다.

책상서랍 한편, 중국집 스티커와 함께 자신이 애타게 찾던 명함(썸18에서)이

자신의 자필로 쓴 <처리 부탁건 011-XXX-XXXX> 전화번호와 함께 붙어있다.

승민 (중얼)대진아, 이 씨발 놓아...(눈을 질끈) 이게 이제 나타나면 어찌자는거냐, 씨발..

승민, 명함을 구겨 찢는다.

CUT TO

승민 정주임님 부탁드립니다.

(소리) 정주임? (저기 말야, 우리 정주임이라고 있나?) 그런 사람 없는데요.

괜한 승민, 거의 마지막 번호를 누르고 있다. 목이 타는지 연신 물을 마셔대는데,

(E) 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고객님의?

푹- 입에 있던 물을 입 밖으로 내뿜는 승민, 놀라서 그만 전화를 끊어버린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는 승민, '너석의 목소리다!!!'
책상 위의 담배를 집는 승민의 손이 덜덜 떨린다.
불붙인 담배를 뿡뿡 깊게 빨아들이고, 이내 재떨이에 눌러 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의자에 앉는 승민, 다시 다이얼을 누른다.
몇 번의 신호가 가고...

(이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의...?

계속해서 들려오는 너석의 목소리.

승민 (목소리를 변조하며) 도와 달라면 도와주나...요?

(E) 네, 말씀해 보세요, 고객님의.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승민의 얼굴에 마침내 좌악 번지는 안도의 미소.

73. 역삼동 사거리 (낮/밖)

달리는 승민의 차, 빠르게 마트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74. 마트 주차장 (낮/밖)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뭔가 확인하는 승민. 킁! 갑자기 멈춘다.
낡은 은색 아반떼 <서울 도 6798>(이규의 차, 썬38 차량 뒷번호 같았던 이규 대사
참조) 앞에 멈춰 선다. 차 안 대쉬 보드 위에 차 주인의 전화 연락처가 보인다.
상기된 미소를 짓는 승민, 전화번호를 되뇌이다, 아예 넥타이핀으로 차문을 따고
내부 이것저것 소지품까지 뒤진다. 웬 병원 요금청구서도 보이고, <서울대병원,
오금자, 뇌경색 1급... MRI및 기타치료비...>뭐야 이걸?? 이때 걸려오는 전화.
<신성 심부름> 이란 메시지가 뜬다.

(센타1) 어떡하죠?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는데...

승민 쫄만 기다려봐요.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끊읍시다.

승민, 결연한 표정으로 이내 마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간다.

75. 마트 입구 (안/낮)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승민의 모습이 보인다.

매장을 돌아보며 녀석을 찾는 승민.

문득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가까이 다가간다.

〈'이달의 우수 직원 - 정이규 주임'〉

선하게 웃고 있는 이규의 얼굴. 승민, '우수직원 정이규 주임?' 입으로 웅얼거리며,

사진 속의 이규가 짓는 미소를 똑같이 흉내내듯 사진을 보며 씨익 한번 웃어 보고,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승민.

(목소리) (40대 남자, 거친) 여보시요?

승민 아, 67가 0779 차주인 되시죠?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거 얼마전 차량파손...

76. 마트 (안/낮)

카트에 의미 없이 물건을 담으며 이규를 찾는 승민.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린다.

물건을 담으며 이규를 찾아 계속 시선을 돌리는데

등 뒤에서 들리는 녀석의 목소리!

“유통기한 신경 써 줘요, 이달만 벌써 클레임이 세 번이나 들어 왔는데”

바짝 긴장을 한 승민, 녀석이 지나갈 때까지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선다.

이윽고 사라지는 녀석의 발소리.

천천히 몸을 돌리는 승민, 흡사 맹수가 먹이를 잡기 직전 잔뜩 웅크린 모습처럼

이규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드는 승민.

승민 어, 기택아 난데... 부탁이 있어!

77. 기택 스튜디오 (안/낮)

녹음실에 앉아 있는 대진, 웬지 긴장한 얼굴이다.

종이를 한 장 들고 마이크에 대고 뭔가를 읽는다.

스튜디오 밖에 있는 기택, “좀 더 자연스럽게”, “언성을 좀 더 높여라”

요구를 한다.

78. 마트 안 (안/낮)

고객 센터 옆 방송실.

“반포 3단지에서 오신 박연선씨, 박연선씨, 지금 곧 고객 센터로 와 주십시오“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리는 이규,
예의 그 환한 미소로 창 문 밖에 서 있는 아이를 본다.

CUT TO

매장 안.
매장의 벽처럼 쌓여 있는 물건들 사이로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사람들.
매장 안이 부감으로 보여진다. 입구에서 뛰어 들어오는 한 남자의 운동화,
홍분한 얼굴의 추리닝남(씬47참조)이다.
“반포 3단지에서 오신 영지 어머니, 영지 어머니 고객 센터로 지금 와 주십시오”
방송 목소리를 듣자 걸음을 멈추는 추리닝,
헉- 고객 센터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CUT TO

엄마를 잃은 아이답지 않게 푹망한 눈빛의 꼬마 아이... 과자 봉투를 건네는 이규.

이규 이거 먹구 있어. 그럼 엄마 오실 거야.
아이 (푹망푹망 눈빛으로) 엄마한테 영지가 기다리고 있다구,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이규 (따뜻하게 웃어주는) 그럴까?

몸을 돌려 마이크를 잡는 이규.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반포 3단지에서 오신 영지 엄마, 박연선씨,
지금 곧 고객 센터로 와...”

갑자기 펑- 공중에서 날아온 운동화발! 이규의 얼굴에 내리 쏘인다.
우당탕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나자빠지는 이규의 멍살을 잡아채는 추리닝.

추리닝 널 줄 알았어, 개새끼야!
이규 (컹컹대는) 무슨... 말씀...이세요?

마이크에 불이 들어와 있다는 표시를 알리는 스위치가 깜빡, 깜빡거린다.

(추리닝) 너, 내차 부시고 뺄 까면 모를 줄 알았어?
(이규) (컹컹대는) 고...고객님...
(추리닝) 고객님? 무슨 말라비틀어진 고객님이야?

CUT TO

방송으로 들리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매장 고객들,
웅성웅성 뭘 일이래, 어수선해지고,
방송 소리에 당황한 직원 몇몇이(명식포함) 방송실로 급히 달려간다.

CUT TO

매장 안 식당.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김이 나는 짬뽕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승민.
방송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을 꺼내 든다.
뵉-뵉-뵉-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사진 메일 하나를 전송한다.
'메일 전송이 완료됐습니다'는 메시지가 뜨자
승민, 짬뽕 국물을 시원하게 쭈욱 들이키고 일어선다.

CUT TO

아수라장이 되 버린 방송실 안.
직원 몇몇은 추리닝을 제지하고, 명식은 열린 방송 스위치를 off로 돌려놓는다.
추리닝 남,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거친 숨을 내쉬고,

명식 (다소 상기, 나서며) 여긴 엄연한 영업장입니다. 신성한 일터에서 무슨 짓입니까?

따지고 나오는 직원들에 위화감을 느낀 추리닝, 이규를 흘린다.
아이를 찾으러 온 고객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방송실 근처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창문 밖으로 하나 둘씩 몰려드는 구경꾼들.

추리닝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이 새끼가 뭘 짓을 했는 줄 알아?
내 차를 부셨다구, 그것도 사람 시켜서!

추리닝의 말에 직원들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다.

명식 정주임이 왜 그런 짓을 해요? 함부로 떠들면 명예훼손이예요!

동료3 정주임이 그랬단 증거 있어요? 정말 웃겨.

추리닝 (가소로운 듯) 그래?

갑자기 이규에게 다시 달려드는 추리닝.
직원들이 말릴 틈도 없이 유니폼 호주머니에서 이규의 은색 핸드폰을 꺼내 든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추리닝의 얼굴이 득의만만해진다.

추리닝 (직원들에게 핸드폰을 보이며) 이 새끼가 내 차 부수라고 시키고,
사진 보내라고 했던 말이야. 알겠어?
이게 범인이 아니면 왜 이 사진이 여기 들었어?

핸드폰 액정 속에 보이는 망가진 자동차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굳어간다.
진실을 말하라는 듯 일제히 이규를 보는 동료들.
이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자기 핸드폰을 본다.
"책임자 오라고 해 책임자!!" 언성을 높이는 추리닝.
망가진 자동차 사진!

언제? 언제 이 메일이 왔지? 당혹스러워하는 이규의 얼굴 위로
“톡!” 시원한 탄산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79. 음료수 매장 (안/낮)

콜라 캔 뚜껑을 딴 승민, 계산도 하지 않은 콜라를 한 번에 쭉 마신다.
고객 센터 쪽을 쳐다보는 승민의 얼굴에 쾌감의 미소.

80. 매장 2층 지정장실 (안/낮)

지점장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 시간을 좀 보시죠.
핸드폰 메일이 온 시간이 채 10분도 안 됐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를 건 뒤 여길 오실 줄 알고 누군가 메일을 보낸 겁니다.

고개를 떨군 채 죄인처럼 서 있는 이규.
테이블 소파에 지점장과 마주 앉은 추리닝,
지점장의 논리적인 말에 조금 흔들리는 표정이다.

추리닝 아무리그래도 그렇지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뭐하러 이 따위 사진을 보내겠어?

지점장 누군가 정주임을 골탕 먹이려고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추리닝 그럼 그 사람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상하잖아?

지점장 (피곤한 표정) 고객님, 정 그러시다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시죠.
고객님은 범인 잡아서 좋고, 저희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 좋구요.
(단호하게) 제가 아는 한 정주임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추리닝 (벌떡 일어나며) 좋아, 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이규에게)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씨발 놀아, 알았어?

지점장 (냉정한) 말씀 삼가해 주시죠. 정주임은 여기 있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죠.
(예의를 갖춘 친절함으로) 가서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세요.

추리닝, 지점장의 냉정하고 각뚱함에 한 발작 물려서며 지점장실을 나간다.
이규의 어깨를 툭툭 쳐 주며 “괜찮다! 일 하다 보면 별의별 손님이 다 있다, 가서
일 보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는 지점장 손길에 이규에 대한 신뢰가 묻어난다.

81. 복도 (안/낮)

지점장실을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달려가는 이규.

82. 락커 룸 (안/낮)

락커 문이 열리고, 락커 안을 미친 듯이 뒤지는 이규.
흥분해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승민의 검정색 핸드폰을 켜는 이규.
몇 번의 신호가 가고, 달각- 연결되는 소리.

이규 너...너... (너무 화가 나 말도 안 나온다) 뭐하는 짓이야?
(승민) 뭘 하긴, 니가 한 그대로 해주는 거지. 어때? 기분이? 즐라 구기지?
이규 핸드폰 찾는 건 포기한 거야? 핸드폰에 있는 거 확...
(승민) 확? 확 뭐?!
이규 더 이상 못 참아, 너 핸드폰 음성에 들어있는 거 경찰에 확 다 불어버리겠어!
(승민) 글썄... 비밀번호나 알아냈는지 모르겠네? 어라?! 이거 뺏데리가 간당간당해,
통화 오래 못하겠는데, 어찌지?

톡- 끊어지는 핸드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규, 주먹으로 락커 문을 친다.
푹, 찌그러드는 락커문. 이때 호주머니에서 울리는 이규의 핸드폰.
핸드폰 플립을 열자마자 들리는 다급한 여자 목소리.

(소리) 여보세요? 정이규씨 되시나요?
이규 (간신히) 네에.
(소리) 여기 서울대 병원 응급실인데요, 어머니가 심하게 머릴 다쳐서
응급실에 들어오셨어요.
이규 아니? 병원에 계신 분이 어찌다가 응급실로?
(소리) 오금자씨 맞죠?
이규 (당혹) 예...그렇긴 한데....
(소리) 지금 몹시 위험한 상태라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싸인이 필요해요. 빨리 와 주세요. 1층 응급실입니다.
이규 !!!

83. 마트 지하 주차장 (안/낮)

이규, 급히 시동을 켜고 급발진 출발한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이규의 차.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던 승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승민 (전화) 내 핸드폰 위치추적(힘주며) 됐나요? (미소) 아! 이동중이라구요?
(딱 걸렸어! 하는 표정) 자알~ 알겠습니다!

84. 도로. 이규의 차 (안/낮)

다급한 얼굴로 운전 중인 이규,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중이다.
뒤에서 차한대가 계속 뺑뺑 거린다.
급해 죽겠는데, 하필 그럴 때 어떤 놈이 신경을 자꾸 긁는다.

이규 네, 오금자씨요, 오금자. 응급실에.. 머릴 다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e) 오금자씨요? 그런 분은 없는 데요.
이규 네?

뺑뺑 이규, 이게 무슨 일이야... 잠시 생각을 정리... 이때 울리는 핸드폰....
보면 <지점장>이다. 이규, 잠시 받을까 말까 고민중... 그런데 연신
뺑뺑거리며 신경쓰이게 하던 뒷차가 이번엔 이규차 옆으로 붙으며 다시 뺑뺑!
울컥 올라오는 짜증에 어떤 놈인가 고개를 돌리는 이규.
이때 옆 차의 유리가 스프릭 내려지면서 운전석의 승민이 보인다.
혀를 찢린 표정의 이규! 잠깐 동안 멍한 표정...

씨익 웃음을 지어보이는 승민.
이내 웃음기를 쓰옥 거두며 입모양으로 '죽었어!' 하더니,
손으로 목을 긁는 시늉을 한다.
이를 양 문채 악셀을 밟는 이규. 빠르게 올라가는 속도계.

승민의 차가 따라 붙는다.
모퉁이 골목길로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는 이규.
헉!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다...고 생각이 미치는 순간!
이규의 눈앞으로 달려드는 가로수..... **꽁!!**
길가 변 가로수를 박고 멈추는 이규의 차.

이규의 차 브레이크 페달 아래 박혀 있는 음료수 캔...
가로수를 들이박은 차머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손으로 에어백을 걷어내는 이규, 머리를 흔들며 간신히 정신을 차린다.
이때, 푹! 푹! 창문 두드리는 소리.
창 밖에서 승민이 콜라 캔 뚜껑 꼭지를 들어 보이며 알밋게 웃는다.
이내 덜컥! 열리는 창문,

승민 내 핸드폰 내놔! 이 개새끼야!!

승민이 정신없는 이규를 한방 먹인다.
이규, 옆으로 쓰러지면, 승민, 거세게 이규의 호주머니를 뒤진다.
드디어! 승민, 자신의 검정색 핸드폰을 찾았다! 득의양양!! 승민, 되찾은 핸드폰에서
저장된 마이폴더에 **음성파일들부터** 맨 먼저 지운다. 그리고...

승민 처음부터 이랬어야 됐어! (퍽) 처음부터... (퍽) 너 같은 놈한테... (퍽)

쓰러져 있는 이규를 사정없이 걷어차고 짓이기는 승민.
도와주러 다가오던 사람들이 놀란다.
계속되는 발길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이규, 어느 순간 살의를 느낀다.

발길질하는 승민의 다리를 온 힘을 다해 팔로 꽉 잡아 자빠뜨리는 이규.
그 와중에 승민의 새로 산 핸드폰이 호주머니에서 떨어져 박살이 난다.

이규 (힘겹게 토해내며) 니 짓이지? 다 니 짓이지?

승민 (흥분) 이, 이 새끼가 진짜 똥질라구 색 쓰네. 그래, 내가 했다 씨발놈아!

벌떡 일어서는 승민, 그 바람에 도로로 질질 끌려나오는 이규...
주변사람들 어쩔 줄 모르고... 연신 발로 내리찍는 승민...
악을 쓰며 들러붙는 이규... 그럴수록 더욱 거세게 짓이기는 승민,,

승민 그러게! 돌려달랄 때 돌려주면 이런 일 없잖아, 이 개새끼야!

승민, 카운터 펀치로 이규의 옆구리를 퍽! 킁! 소리와 함께 이규가 떨어져 나간다.
승민, 상기된 표정으로 옷과 머리를 추스르고, 유유히 걸어 나간다.
되찾은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도 때려보고...

승민 아, 봉감독님! 제 옛번호 안지우셨나봐요? 예! 찾았지요! 드디어!!
예!!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아닙니까? 하하하! 거! 그리고 그때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노출 수위 조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 참~ 선수끼리 왜 이래요? 상황이 바뀌었잖아. 상황이! 지금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수는 없죠. 그럼요~

동공 풀린 눈으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누운 이규의 컷가에
아스라이 멀어져 가는 승민의 목소리...

90. 백화점 (안/낮)

고급스런 남자 셔츠가 진열된 셔츠 매장. 클래식한 음악....
시원한 느낌의 푸른색 셔츠 위에 이것저것 여러 넥타이를 골라
코디를 해 보는 정연, 그 앞에는 여점원이 서 있다.

정연 언니, 어느 게 나아요?

여점원 전 둘 다 괜찮은데, 입으실 분 하시는 일이?

정연 사람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라... 좀 까다로워서.

여점원 그럼 이걸루 하세요, 점잖으면서두 감각 있어 보이는.

여점원, 푸른색 셔츠 위에 검색 넥타이를 들어 자기 몸에 대 보인다.
잠깐 동안 고민하는 정연, 씨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셔츠 케이스를 집어 포장을 하는 여직원.
정연, 뭔가 생각 난 듯 핸드백을 열며...

정연 저, 볼펜 있으세요? 카드를 좀 썼으면 하는데.

여직원 (웃는) 그럼요, (볼펜을 건네며) 여기요. 적으실 카드는 있으세요?

정연 네. (웃으며 고개 끄덕)

정연, 이내 핸드백속에서 *플라로이드류 사진 한 장*을 꺼내 뭔가를 적는데...

85. 고급 레스토랑 (안/낮)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정연, 옆에는 곱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다.
물 잔을 다 비운 정연, 시계를 힐끔 쳐다본다.
정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본다.
잠시 후 음성으로 넘어간다. <한준수입니다. 메시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CUT TO

핸드폰 액정으로 시간을 확인해 보는 정연.
웨이터가 다가와 정연의 커피 잔에 커피를 한 잔 채워주고 돌아간다.
정연, 다시 핸드폰을 걸어본다.

INSERT 한준수의 사무실... 울리는 진동소리.... 화면, 인기척 없는 사무실 내부를
훑으며 지나가는데...<변호사 한준수> 명패가 놓인 정갈한 책상,
화면, 계속 진동소리를 따라가면, 양복 겉옷이 책상밑 바닥에 널부러져 있고...
진동 소리, 그 안에서 울리고 있다.

CUT TO

핸드폰 플립을 닫는 정연, 조금 화가 난 표정으로 굳어진다.

86. 할인마트 지점장실 (안/낮)

잔뜩 부어있는 이규를 보며 난감한 얼굴로 이마를 긁적이는 지점장.

지점장 근무지는 왜 이탈한 거야? (미심쩍은) 이런 식이면 나두 곤란해.
우리 지점 이미지두 그룰구...

이규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갑자기 어머니가...

지점장, 이규 애긴 듣지도 않고 컴퓨터 마우스를 움직인다.
이윽고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대진) 손님이 하자 있는 물건 바꿔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이규) 다짜고짜 말 놓지 마. 나 그런 식으로 말 놓는 인간들 제일 싫어!

(대진) 너 누구야? 누군데...

(이규) 나 참... 전화를 이따위로 받으면서...

너 같은 거 낳고도 니 애미는 미역국 먹었을 거 아냐 쫓쫓.

분명!! 하나는 내 목소리가 맞는데, 앞에 저 목소리는 누구지?
정리가 잘 안 되는 듯 잠시 멍한 상태로 서 있는 이규.

지점장 인터넷 고객 불만 게시판에 올라온 거야.

열 받은 고객이 녹음해 뒀다 올린 거 같은데, 본사가 발칵 뒤집어졌다구.

지점장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으로 달려오는 이규.
컴퓨터 모니터에는 인터넷 고객 불만 처리 게시판.
작성자를 확인하는 이규, '김대진', 모르는 이름이다.

지점장 이런 식이면 나두 더 이상 자넬 케어 해 줄 수 없어.

아까 그 고객 사건까지 다시 생각해 볼 수 밖에 없다구.

얼굴 안 보인다고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막말을 한다면... (말끝 흐리며)

내가 자넬 잘못 본 거야? 본사에서 당장 사표 받으라고 난리야... 어쩔 건가?

이규 ...!

당황한 빛이 역력한 이규의 표정... 안쓰러운 눈빛의 지점장.

지점장 (전화가 울리자) 나가서 일봐. 생각 좀 더 해보자고.

이규, 손발이 떨려온다. 간신히 여닫고 나가는 문틈으로
지점장의 통화소리가 들려온다.

(지점장) 어! 강명식 대리. 그래, 본사 내정자로 그 친구가 들어갈 거야.

이규 !!! (눈빛이 심하게 흔들린다)

87. 마트 안 (밖/저녁)

복적이든 마트안. 이규, 낯 나간 사람처럼 걷고 있다. 갑자기 이규의 등 뒤에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구?” 누군가 지른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
 움찔 놀라 뒤를 돌아보는 이규. 한 손님이 다른 손님을 다그치고 있다.
 손님1이 손님2와 부딪쳐 손님1의 핸드폰을 떨어뜨린 모양.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손님2에게 계속 화를 내는 손님1,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이규... “뭐하는 거야, 지금?” 명식이 이규에게 채근하듯
 한마디 던지고 손님들에게 다가간다. 명식, 인심 좋은 미소로 손님1을 달래고,
정주임님! 정주임님! 이규를 부르는 소리, 전화상담하는 여직원2가 전화기를 높이
 치켜들고 이규를 부른다. **이규, 갑자기 이 모든 게 너무 생경하다.** (주변 모든
 소리들이 에코우로 들려오고) 이규, 냇 나간 놈처럼 천천히 이동.... 여직원2를
 그냥 스쳐 지나 밖으로 사라진다.

정주임님! 여직원2, 소리 높여 불러보지만 소용없다.

88. 영화사 빌딩 (안/오후)

등그런 테이블에 놓인 계약서에 승민이 막 싸인을 마쳤다.
 계약서를 감독 앞으로 내미는 승민의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진다.

승민 이게 바로 원원 게임 아닙니까, 감독님?

89. 도로. 달리는 차 (안/밤)

쾅! 쿵쾅! 한껏 볼륨 높힌 음악 소리.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듯 승민,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때 위잉- 진동 소리를 내는 전화벨. 승민, 볼륨을 줄이고 핸드폰을 집어 든다.
 <정연>이라고 씌여진 액정 글씨.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승민, 전화를 받는다.

승민 (한껏 부풀은) 어, 당신이야! 안 그래도 전화 할려고....

(이규) 나 지금 정연씨하고 같이 있는데!

끼이익~,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차를 세우는 승민! (긴장된 음악)

90. 차 안 (안/밤) - 음악 계속

핸드폰 쥔 승민의 손이 발발발....
 핸드폰 액정 속, 화면으로 보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연의 모습!!
 승민, 충격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다.

승민 너... 너 이 새끼. 아내는, 아내는 건드리지 마!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

(이규) 언제부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승민 부,부탁이다. 아내는 놔 줘.

91. 승민의 집 (안/밤)

정연의 두 손이 묶여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규 (그런 정연을 쳐다보며) 걱정하지마. 정연씨 해칠 생각으로 온 거 아니니까.

(승민) (버럭) 그럼 뭇 때문에 거기 있는 거야?!! 이 미친 놈아!!

이규, 핸드폰을 들고 정연에게서 거리를 두며,

이규 궁금한 게 있어서 와 봤어. 내 한가지만 묻자. 니 핸드폰 음성메시지 말야...

재있는 게 들어있데? 뭐 너도 들었봤을테니 잘 알겠지만 말야.

92. 차 안 (안/밤)

승민 (당황) 니가 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규) (웃으며) 아! 그거? 생각보다 아내생각이 각별해.

혹시나 해서 니 핸드폰에 메모된 정연씨 생일날짜를 넣어봤지.

승민 (발발 손이 떨리는)....

(이규) (다짜고짜) '수족상해' 라.....

승민!

(이규) 팔다리를 뭐.. 어떻게 손봐준다는 거 아니야?

승민 (경직)

(이규) 너무 궁금하더라고. 대체 뭇 때문에 누구한테 그런 짓을 벌일까 하고 말이야.

근데... 정연씨를 만나보니 대충은 알 것도 같아...

승민 !!!

93. 승민의 집 (안/밤)

이규, 정연이 적은 폴라로이드 사진류 밑 여백에 적힌 글귀를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있다. < 존수씨, 나 이 사랑을 지키기로 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정연 >

이규 근데 말야, 내가 이 사실을... 정연씨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돼?

승민 (숨이 턱 막힌다) ...도,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규 (갑자기 버럭) 내가 말했지! 공손하게!! 다짜고짜 반말 하지 말라고!!!

승민 ...자,잘못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할테니까 제발 아내한테만은...

이규 원하는 대로 다한다? ...다한다구? 좋아! 그럼 말야, 누굴 좀 데려와 줘.

승민 (남패감) 네?
 이규 네라니?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했잖아? 싫으면 없던 걸루 하고...
 승민 아뇨.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서요.
 이규 30분 안에 강남역 사거리 동우 빌딩으로 가!
 승민 예? 강남역 사거리? (울컥하는) 30분 안에 여기서 거길 어떻게 갑니까?
 지금 퇴근 시간이라구요!
 이규 싫어? 싫으면 말구,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지 뭐. 싫으면...
 승민 (누그러지며) 가...갑니다

이내 급출발 하는 승민의 차.

이규 그 빌딩에 가서 데려올 놈이 좀 있어.
 승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됩니까?
 이규 시간 없어. 30분이야. 30분 안에 도착해서 전화해.
 승민 네... 저기! 잠깐만! 근데 데려올 사람이 누구...죠?
 (이규) 도착하면 알려줄 거야. 자, 그럼 (상냥하고 친절함) 서두르세요, 고객님!

톡- 끊기는 전화기!

끊어진 전화기에 대고 알았어... 알았어... 꺼질 듯 소리를 내는 승민.

핸드폰 플립을 닫는다. 앞으로 30분! '강남역 사거리, 동우 빌딩' 중얼거리는 승민,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중앙선을 넘는다.

요란한 굉음을 내며 유턴해 반대로 달리는 승민의 차, 무섭게 질주한다.

94. 승민의 집 (안/밤)

이것저것 둘러보며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이규,
 마침내 정연 앞으로 와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 이규, 거실 벽에 붙은 결혼사진을
 올려다본다. 다시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 찰칵!

이규 (나직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참 이뻐요.

정연 (두려운)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규 ...처음에, 첫 통화했을 때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하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참 편했어요.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해야 하나, 딴 사람들 목소리는 다 지겨운데,
 아무튼... 당신 목소리는 맘이 편했어요, (정연을 물끄러미) 이상하게도...

정연

95. 동우 빌딩 앞 (밖/밤)

끼익- 인도 변에 서는 승민의 차.
차량 안의 전자시계는 7시 50분을 가리킨다.
급하게 차에서 내리는 승민, 건물 쪽을 바라다보면,
1층에 불빛이 환한 약국이 보이고... 안엔 에어컨을 품고 있는 (썸68의)약사가 보인다. 문득 약사와 눈이 마주치는 승민, 이내 전화를 건다.

승민 도착했습니다. 누굴 데려가면 돼죠?
(이규) 1층에 약국이 보일 거야.
승민 네, 약사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저 놓입니까?
(이규) 그 사람....말고 이층을 봐.

승민, 빠르게 위를 쳐다보면 PC방 네온싸인이 보이고,

(이규) PC방이 보일 거야. 거기 들어가면 아마 낮 익은 놈이 하나 있을 걸.
그 놈을 데리고 나와.
승민 네? 저, 저한테 말입니까?
(이규) 그래, 시간이 없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끊는다)
승민 ...???

96. PC방 (안/밤)

승민, 허겁지겁 PC방안으로 들어선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의 목소리.
승민, 다짜고짜 PC방을 뛰지는데,

승민 ...!!

승민, 한쪽 편 누군가에게 시선이 쏠린다.
윤호다! 윤호, 길길거리며 열심히 채팅중, 섹스 동영상으로 아주 영웅이 됐다.
(다들 부럽다는 반응의 댓글들) 열심히 답글을 올리는 윤호.
장윤호! 윤호, 미소를 지으며 반사적으로 돌아보다 순간, 너무나 놀라 자리를 박차고 도망치는데, 승민, 비호같이 달려가 낚아챈다.

윤호 잘못했어요! 실장님,아니 대표님! 어쩌다 보니까 정말 그냥 울컥하는 마음에.
승민 ...!! (동영상유포 범인임을 직감, 얼굴 일그러지며) ...이, 이 씹새끼!

승민, 윤호를 한방 먹인다. 사람들, 웅성웅성....

윤호 대표님! 대표님! 잘못했어요! 제발!
승민 (버럭) 입 닥치고 따라 나오거나 해! 씹새끼야!

97. 도로. 달리는 차 (안/밤)

룸 미러로 보이는 뒷좌석.

윤호, 덜덜 떨며 입은 파스로 막힌 채 양 손과 다리는 결박된 채 뒷좌석에서 굴러다니고 있다. 승민,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전화를 건다.

승민 지금 뭐하자는 거야?

(이규) 복수하고 싶지 않아? 그 놈 땀에 모든 게 시작된 건데.

승민 애가 뿌린 건 어떻게 알았어?

(이규) 그럼, 정말 내가 그랬을까?

승민

(이규) 허긴... 세상이 그렇지. 말 못하고 착한 놈이 항상 오인받고 당하기 일쑤니까.

승민 대체... 애라는 건 어떻게 안 거야?

(이규) 굿바이다. 이 씨발새끼야!... 라고 전화가 왔던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름 발신자 추적 좀 해봤지.

승민 이,이제 어떡할 거야?

(이규)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말 짧아지지마.

승민 (뜨끔) 죄,죄송합니다.

(이규) 지금부터 30분 주겠어! 30분 안에 역삼역 사거리 해피 마트로 가.

승민 (나지막하지만 결연한) 가서는요? 가서는 어떡합니까?

(이규) 마트 1층 고객 락커 맨 밑 909번. 거기 너를 구원해 줄 물건이 들어 있어.

승민 열쇠는요?

(이규) 가보면 알아! 30분! 30분이야. 1분이라도 늦으면... 아시죠 고객님?

전화를 끊는 승민, 씨발! 씨발!을 외치며 핸드폰을 보조석에 집어던지고 부웅- 속도를 내서 도로를 질주한다.

98. 마트 (안/밤)

고객 전용 락커가 세워진 마트 일각.

807, 907, 908, 909?? ...909가 없다.

대신 순서 배열상 있을 자리에 락커 문은 떨어져 나가 없고,

잡동사니 비품들만 잔뜩 들어있는 곳이 보인다.

락커 앞에 쭈그려 앉는 승민, 다짜고짜 잡동사니들을 뒤져보면,

그속에 놓인 시퍼렇게 날이 선, 길고 가는 부처 나이프.

칼을 집는 승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얼굴은 하얗게 질린다.

99. 승민의 집 / 차안 (분할 화면) (안/밤)

거실에 정연이 혼자 뒤로 묶인 채 앉아있다. 정연,결박을 풀어보려 애를 쓰고 있다.
기둥의 날카로운 곳에 문질러 보기도 하고...
침실 안, 이규, 서랍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다. 이때 울리는 정연의 핸드폰.
이규가 플립을 열자마자 핸드폰 너머로 들리는 승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승민 도대체 뭐야! 이 칼루 뭘 어떡하란 거야!!
이규 난 칼을 들고 나오라곤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제일 들고 나오고 싶었나 보지?
승민 뭐야!
이규 또 말이 짧아져. 정말 어쩔수가 없구만.
승민
이규 좋아! 기왕 들고 나왔으니 그걸로 뭘 하면 좋을까?
아! 그래, 수.족.상.해! (또박또박 강조) 그게 좋겠네. 니가 했던 것처럼 말야.
승민 !!
이규 어디 팔 하나만 잘라서 보여 줘봐.
승민 팔을 잘라!? (목소리를 누르며) 너, 미쳤어?
이규 내가 미친 걸로 보여?
승민 ...경찰에 신고하겠어.
이규 (담담한) 신고 못해 년.

INSERT 차안, 윤호가 몸부림치고 있다.
잠깐 동안의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흐른다.
먼저 입을 떼는 쪽이 질 거 같은... 팽팽한 긴장감.

승민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구. 그니까 제발, 여기서 그만하자. 제발, 제발...

전화선을 타고 승민의 흐느낌이 터져 나온다.

이규 (피식) 사과 같은 건 필요 없고... 10시, 10시를 넘기기 전까지
그 놈 팔 한쪽 잘라서 보여주기. 아! 팔이 뭐하면 말야... 그 자식 거시기도 좋아!
자! 그럼, 시작하세요, 고객님!

뚝- 끊기는 전화기. 승민, 표정이 일그러지며 차를 가속한다.

100. 공사 현장 (안/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현장.
멀리 도심의 불빛이 간간히 비치는 어두운 곳,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윤호, 파스로 입이 막히고 개 줄에 양 팔을 결박당한 채

차 밖으로 끌려 나온다.

CUT TO

겉에 질려 땀을 뻘뻘 흘리는 윤호.

승민은 핸드폰을 꺼내 액정 화면의 시계를 본다.

플랩을 닫는 승민, 부쳐 나이프를 들고 윤호에게 다가간다.

CUT TO

시간이 멈춘 듯... 적막감.

승민, 눈을 질끈! 윤호를 향해 칼끝을 세우는데,

땀 뻘뻘 윤호, 틀어 막혀진 입으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를 연신 외치고,

팔...거시기... 혼자 웅얼거리는 승민, 긴장한 탓인지 손에 땀이 배어 나온다.

승민,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핸드폰을 꺼내 다시 이규에게 전화를 건다.

이규 핸드폰으로 비춰 봐.

승민 아직 못 했어.

이규 뭐 하자는 거야? 자르지도 않았으면서 전화는 왜 해?

승민 하나만 묻자!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규 간단해.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승민 누가 누구에게 당했던 거야?

이규 정말 꼭 자세히 까발려봐야 돼?

승민

이규 아니면? 더 이상 못하겠단 뜻인가? 그럼 하는 수 없지,

정연씨에게 다 까발리는 수밖에...

승민 (분노가 터져 나오는) 야이 개새끼야! 너 사람 갖구 장난해!

그래 씨발! 안 그래도 이미 다 들었겠다. 들려줘라. 들려줘!

어차피 수족상해, 그 정도갖곤 깍해야 몇 년이다. 이 씨발 놓아!!

이규 (담담) 사람이 죽었는데?

순간, 경직되는 승민의 얼굴,

승민 (충격에 휩싸여) 뭐라고?!!!

이규 왜? 그건 못 들었나봐? 아! 그렇구나! 그건 그 뒤에 들어온 건데,

그러게 열심히 체크를 했어야지. 쫓쫓... 통화가 안되니 그 치도 답답했나봐.

천절하게도 다시 음성 남겨뒀던데, 본인은 잠적하겠데....

승민 (부들부들) ...

이규 이제 정말 알아서해!

똑! 끊기는 전화.

101. 승민의 집 (안/밤)

정연이 몹시 불안한 눈으로 방안에서 (라이터를 찾아 쥐고) 거실로 나오는 이규를 쳐다본다. 이규, (글귀가 적힌) 폴라로이드류 사진을 정연에게 차분히 건네주며,

이규 잘 생각했어요. 그딴 놈한테 당신같은 여자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정연 도,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죠?
이규

102. 공사 현장 (안/밤)

멍한 얼굴로 핸드폰 플립을 닫는 승민, 스프룩 무너지듯 쭈그러 앉는다.
두 눈이 시뻘게지는 승민...
문득 땅바닥에 떨어진 부채 나이프를 다시 집어 든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윤호에게로 티벳터벳 다가가는 승민.
윤호, 커다란 두려움에 바들바들, 두 눈만 껌뻌, 껌뻌.

103. 승민의 집. 거실 (안/밤)

유리창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는 어두운 거실.
커튼 사이로 밤하늘에 떠 있는 달.
왠지 아늑한 느낌이 드는 밤하늘의 분위기다.
하지만 정연은 사뭇 불안한 표정이다.

이규 (다짜고짜) 몇 킬로예요?
정연 (돈금없는 질문에) 네?
이규 몸무게요, 얼마나 나가냐구요?
정연 오, 오...십킬로...
이규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웅얼웅얼 거리는) 팔점 삼킬로...
정연 네?

이때 이규의 호주머니에서 날카롭게 울리는 핸드폰 소리.
핸드폰을 치켜들며 잠깐 굳어지는 이규의 표정, 이규, 정연에게서 멀어져
핸드폰을 들고 소파쪽으로 이동한다. 이내 핸드폰을 켜들면,
여자의 섬짓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어찌보면 몹시 괴이하고 처량한....)

목소리 이규..야~ 이규..야~ 죽고...싶어~ ...에미~ 그냥... 죽고 싶어~
이규 (차갑게) 그러세요! 어차피 이제 더 수술해줄 돈도 없어요!!!

특- 전화기 플립을 닫는 이규,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어깨를 들썩이며 껴이껴이 서럽게 우는 이규.

정연
.....

정연, 뒤로 묶인 테이프를 기둥에 계속 문지르고 있다.
테이프가 조금씩 뜯겨져 나간다.

104. 공사현장 (밖/밤)

양손이 결박된 윤호를 풀어주는 승민, 휘적휘적 '가라'고 손짓하지만,
공포에 질린 윤호는 몸을 움직일 줄 모르고 움찔거리기만...

승민 (악을 쓰며) 가, 가라고! 살려줄 테니까 가! 씹새끼야!

그제서야 승민의 말을 알아들은 윤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연발하며
어둡속으로 허겁지겁 사라진다. 이내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드는 승민.
이규에게 전화를 건다. 통화음이 길게 이어지다,

승민 나야.

(이규) (몹시 잠긴 목소리) 팔은?

승민 내가 그런다 해서 니가 아내한테 말을 안한다는 보장이 어딴어?

(이규) (무겁게) 아직도 못 한 거야? 그래, 어차피... 당신 결정은 당신 맘이지.

내 결정은 내 마음이고. 안 그래? 세상 뭐 있겠어? 어차피 자기 꼴리는 대로
살다 가는 게 최곤데 말야. 안 그래?

(정연) 여...여보... 살려줘. 가스... 가스를 틀어놔어. 여보...

이규 목소리 너머 희미하게 들려오는 정연의 고통에 찬 목소리.

승민 (당황) 가스?!!!

105. 승민의 집 (안/밤)

쉬이이~ 가스레인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소리...

정연이 몸부림치고 있다.

그와 대비되게 몹시 차분해 보이는 이규, 소파에 앉아 통화중.

이규 왜? 정연씨가 걱정돼?

(승민) 아,아직 시간 남았어. (스스로에게 주지시키듯) 10시! 10시에 전화할게.

땀을 뻘뻘 흘리며 뒤로 손목의 테이프를 갈아대는 정연...
한편, 소파에 앉아 있는 이규, (정연에게 관심도 없는 듯 소파 한켠에 라이터를
둔 채) 핸드폰으로 뭔가를 조작....이내 액정화면에 <예약전송이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뜬다. 이규, 무심히 플립을 닫으며,

이규 (한마디 불쑥) 그리 애 쓸 필요 없어요.
정연 (멈칫, 놀라) ...!!

이규, 천천히 정연에게 다가온다.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정연.

106. 도로. 달리는 차 (밖/밤)

빠르게 구르는 차바퀴.
차 안의 디지털시계가 9시 53분을 향해 간다.
더욱 더 강하게 악셀을 밟는 승민,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간다.

107. 거실 (안/밤)

시계를 보는 이규, 9시 55분을 가리킨다.
정연 옆으로 다가가 앉는 이규.

이규 팔점 삼킬로...
정연 (부들부들)....!
이규 달이요, 저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정연 씨가 저 달에 가면 8.3킬로그램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재밌죠?

손 안에 든 라이터를 내려다보는 이규.

이규 달에 가면 이 지겨운 시간들도 6분의 1로 줄까요?

끔찍한 다음 상황에 대한 걱정에 정연은 커다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정연 제발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나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저, 전 출...

이규 (불쑥) 가세요.

정연 !!??

이규 미안했어요. 지금껏...

이규가 정연의 손에 묶인 테이프를 풀어준다.

108. 승민의 집 앞. (자동차 안/밤)

끼익! 막 도착해 멈춰서는 승민의 차.
집 쪽을 노려보는 승민의 눈동자에 분노가 일렁인다..
이내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리는 승민,
몸을 낮춰 집 앞에 주차된 정연의 차 쪽으로 가
넥타이편을 뽑아 차량 구멍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는다.
뵙-뵙-뵙- 요란한 경고음을 내는 차.

109. 승민의 집 뒤 (밖/밤)

승민, 집 뒤편길로 들어선다.
부엌 창문으로 다가가 덜컹대는 샷시를 조심스럽게 뜯어낸다.
이윽고 부엌 창문 안으로 보이는 거실. 이규가 현관 앞으로 나가는 게 보인다.
승민, 거실 안을 훑어지게 봐보지만,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뜯겨진 밧줄만
어지러이 나뒹굴뿐.... 승민, 거친 호흡과 함께 조용히 거실로 들어선다.

110. 승민의 집 앞 (밤/밖)

현관 앞에 가 리모콘 키로 경고음을 끄는 이규.
올려대는 자동차의 경고음이 멈춘다.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마땅찮은 얼굴로 서 있던 이웃 주민,
소리가 멈추자 돌아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간다.

111. 승민의 집 (안/밤)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이규... 이때,
정주임!!
움짤!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멈춰서는 이규,
순간 목에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와 닿는다.
승민이 부쳐 나이프를 이규의 목에 대고 있다.

승민 손에 든 거 내려 놔.

이규, 자동차 키를 가만히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승민 아니, 라이타. 라이타 내려 놔.

승민, 이규의 라이터를 뺏자마자 쌍욕을 하며 두들겨 패고 밟기 시작한다.

승민 이 씨발 놓아! 재밌냐? 재밌어!! 내 아내, 내 아내는 어떻게 한 거야, 어?
말 해! 말 안해!!

배를 움켜쥐고 거실을 구르는 이규,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물건들을 승민을
향해 사정없이 던진다. 이때 침실에서 외출복 차림의 정연이 뛰쳐나온다.

정연 다들 그만해요! 안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승민 (아내를 보고 놀라) !!!

갑자기 화분 하나가 승민의 머리에서 흙먼지를 뿜으며 제대로 작렬한다.
휘청거리며 나자빠지는 승민, 이규, 그 틈을 타 오히려 승민의 가슴 위로 올라탄다.
승민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입이 찢어져라 힘껏 벌리는 이규,

이규 말할 땐 항상 공손히 말하라 그랬지!?
다짜고짜 말 놓지 마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더욱 힘이 들어가는 이규의 손. 승민의 입이 정말 찢어질 지경이다.
실성한 사람처럼 시뻘게지는 이규의 얼굴.
잔뜩 당황한 정연이 침실로 다시 뛰쳐 들어간다.
승민, 흘깃 현관 쪽에 떨어진 부채 나이프를 본다.
이내 현관 쪽으로 손을 뻗어 칼을 집으려는 승민.
하지만, 이를 눈치 챈 이규, 먼저 손을 뺀다.
이때 온 몸으로 이규를 밀쳐내며 재빨리 호주머니에서 자신의 검정색 핸드폰을
꺼내드는 승민,

칼을 잡은 이규를 핸드폰으로 후려친다. 이규가 넘어지며 현관 옆에 놓였던
장식장이 함께 무너진다. 더불어 거기 놓여있던 수석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떨어지
고... 승민, 움켜쥔 핸드폰으로 이규의 머리통을 후려갈긴다.
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쓰러지는 이규.... 승민이 이규를 올라탄다.

(정연) 그만해, 여보!! 다 신고 했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침실에서 정연이 무선 전화기를 들고 뛰쳐나왔다.
하지만, 승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이규를 계속 후려친다....

승민 (버럭) 다 잘 될 수 있었는데... 씨발, 너 때문이야!
니가 장난질만 안 했어도... 다 잘 될 수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린다) 너 같은 놈은... 이 씨발새끼! 죽어야 돼!!!

더욱 무자비해지는 승민의 가격.. 움켜쥔 검정색 핸드폰이 별장게 피로 물들어간다.

정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규, 바닥을 기다, 간신히 돌아서며,

이규 (아프게 웃는) 죽여줘...

더욱 달아오르는 승민, 아예 이규의 머리채를 그러쥘다.

승민 니 대사는 그게 아니지! 정주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그게 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야, 알아? 그 새 잇은 건 아니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고객님! 해봐! 어서 해보란 말이야! 이 정주임 씨새끼야!!!

광분한 승민, 아예 이규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 찍는다.
쿵-쿵- 내리 찍을 때마다 바닥에 묻어나기 시작하는 핏자국.
하지만 머리가 들릴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승민을 매섭게 노려보는 이규.

퍽! 둔직한 그 무엇이... 승민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제서야 승민, 천천히 뒤를 돌아다본다.
부들부들 떨며 수석을 들고 서있는 정연...

승민 (벌건 눈, 낫 나간 표정) 여,여보....

스르르...승민의 손에서 이규의 머리가 빠져나간다.
쿵! 바닥에 처박히는 이규의 머리, 무생물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승민,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천천히 정연에게 다가간다.

잔뜩 충혈되고 애처로운 승민의 눈빛... 움짤,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정연..
정연의 표정이 서서히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와락! 정연을 껴안는 승민.

승민 우리 다 용서하자... 응? 여보! 우리 서로 다 용서해! 나,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한준수 그 인간...그,그냥 정말 경고만 줄려고 그랬는데....

정연!!!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정연... 뒤로 털썩 주저앉고 만다.
승민, 계속 서로 용서하자는 말만 반복, 눈물까지 그렇거리며 정연의 얼굴에
떨리는 손을 가져가는데.... 어디선가... 둔직하게 진동하는 핸드폰 진동소리....

승민 !!!

자신의 손에서...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다. <예약사진 수신중... 땡땡 수신되었습니다.>
승민, 반사적으로 액정화면에 시선이 가는데....

예의 폴라로이드류 사진.... 화면에 떠있고, 승민의 시선에 따라 클로즈업 되면,
아기 초음파 사진이다. 승민, 초음파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
그밑으로 다시 클로즈업되어 들어오는 사진 밑 글귀..
< ~~존씨~~, 나 이 사랑을 지키기로 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정연 >
마침내 별경게 충혈된 승민의 눈이 마구 떨린다.

승민
.....

승민의 손에서 정연이 스르륵 떨어져 나간다.
떨리는 눈으로 승민을 바라보고 있는 정연, 이내 후두둑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진다.

정연 미안해...여보.... 미안해....
승민 (충혈된채 마구 흔들리는 눈빛) ...

승민의 투박한 손이 눈빛만큼 마구 떨리며... 정연의 얼굴 쪽으로 향한다.
꿈틀! 이때 뒤쪽에서 미동도 없던 이규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승민
.....

승민, 정연의 뺨에서.... 흐르는 눈물을 무겁게 훔쳐 주며...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마침내 승민의 눈에서도 붉은 눈물이 푹푹 떨어진다.

승민 (마구 떨리는 손) 다.. 끝났어...여보... 이제... 다 끝났어.....

112. 승민의 집 근처 (밤)

정신없이 경광들을 번쩍이며 연이어 도착하는 경찰 차량들...
차 안에서 경찰들이 쏟아져 내린다.

INSERT 톱! 이때 라이터를 켜는 누군가의 손....
순간, 불이 라이터를 타고 점화하고, 무서운 기세로 발화하는 불...
점차 느린 화면으로 바뀌며, 온 방안을 뒤덮으며 발화하고....
(느리고 서정적인 음악)

113. 승민의 집 (밖/ 밤) - 음악 계속

뽕! 요란한 굉음과 함께 빠른 속도로 유리창을 뚫고 나오는 불길들.
집으로 잠입하던 경찰들, 놀라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데....

폭발하는 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경찰1(느린 화면으로),
뿌연 연기를 토해내는 승민의 집을 멍하니 바라보면, 점점 연기에 쌓여
가려지는 승민의 집.. - F. O...

잠시 후.... 무지상태에서 들려오는 (탁하게 잠긴) 누군가의 목소리...

(소리) 거기까지가... 제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114. 병원 (안/낮) - F.1.

화면 밝아지면, 머리와 팔에 붕대를 감싸고 있는 수척한 얼굴의 승민,
힘겹지만 천천히 얘기 중이다. 앞에 형사 반장과 박형사가 앉아있다.
박형사가 들고 있는 소형 녹음기의 REC 버튼이 빨강게 깜빡인다.
반장, 박형사 모두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

박형사 (무겁게) ...핸드폰? 겨우 핸드폰 하나 때문에 그런 일이...

승민

박형사 핸드폰을 주웠다는 그 범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니까?

승민 네. 핸드폰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본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난감한 얼굴로 반장을 보는 박형사, 이때 간호사가 들어와 얘기가 중단된다.
승민의 팔에 정맥 주사를 놓는 간호사를 내려다보는 반장,
뭔가 할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다 힘겹게 말을 댄다.

반장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국과수에서 배우자 김정연씨 사인(死因)이 좀...
특이하게 나와서....

반장의 말에 순간, “엇!” 하고 작은 신음을 토해내는 승민.
간호사 “힘주면 아파요, 긴장하지 마세요” 말하며 주사를 놓고 링거를 점검한다.

반장 사인이 말이죠....폭발로 인한 게 아니라... 경부(頸部)압박에 의한 질식입니다.
아마도 범인이 불을 지르기 전...(머뭇) 성폭행을 감행하려다 김정연 씨의
목을 조른 게 아닌가...

웁- 갑자기 오바이트를 하는 승민. 서 있던 반장, 박형사 당황한다.
얼른 휴지를 뽑아 승민에게 건네는 간호사.

간호사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승민, 연신 꺾꺾거리며 멀건 액체를 토해내고...
그런 승민을 망연히 지켜보는 형사들...

- F.O.

INSERT F. I. 분주한 거리 모습... 자동차 소음, 제각각 핸드폰 들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여전하고... 그 위로 자막 - 6개월 뒤

115. 빌딩 안 (낮/안)

회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승민, 초췌한 모습은 사라지고 산뜻한 슈트 차림이다.
엘리베이터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승민.
“씨에프면 다야? 배우 이미지를 고려해야 할 거 아냐? 대출광고는 캔슬 시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의 승민,
최사장(썸5, 썸55 참조)을 발견하고는 똥 뺀 얼굴이 된다.

최사장 어? 오대표 아냐?! 여긴 어떤 일이야?

승민 (마지못해) 사무실이 여기...

최사장 사무실이 여기야? 요즘 잘 나간다더니... 빚 갚았다고 연락 한번 없구 섭섭해.

땡-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무표정한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던 승민,
‘전 그럼 이만’ 입 속으로 웅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냉큼 내려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간다.

116. 사무실 (낮/안)

똥 뺀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서려는 승민, 평! 눈앞에서 폭죽이 터진다.

“생일 축하드려요~ 대표님”

대진을 비롯한 사무실 식구들이 박수를 치며 승민을 반긴다.

승민 (괘스레) 뭐냐? 애들처럼.

대진 에이, 왜 그래요? 촌스럽게. 좋으면 좋다 그래라.

승민 그래, 좋다, 좋아 죽겠다. 됐냐?

(손바닥을 내밀며) 자자 다들 내놔, 설마 맨입으루다 축하한다는 거 아니지?

대진 맨입이 단데.

승민 (실망한 듯) 진짜야?

승민의 말에 씨익 웃으며 뒤에 숨겨둔 선물을 흔드는 대진.

승민 어디봐!

다짜고짜 선물부터 뜯어 제끼는 승민... 어어! 안돼는데... 대신이 막을 새도 없이,
승민, 선물 펼쳐 보면, 윤진아 주연의 DVD. <괴목도 살인사건>
타이틀에 윤진아가 기이한 나무숲속에서 반나체로 뒤돌아보며 쫓기는 얼굴 C.U.

승민 야! 이런 것도 선물이나?

대진 왜요? 그래도 대박기념인데.

승민 (웃는) ...

이때 여직원1, 준비한 케익을 들고 승민 앞으로 나온다.

촛불이 켜진 케익을 받아드는 승민, 직원들의 이런 준비가 싫지 않다.

승민 그래도 할 건 다 했네.

대진 꾸물거리지 말구 촛불이나 꺼요, 촛농 떨어지면 못 먹어.

승민 알았어, 알았어.

촛불을 끄려 숨을 크게 들이쉬는 승민, 이어지는 생일축하 노래소리.
이윽고 케익 절단식....대진이 씨익 웃으며 부쳐 나이프를 내밀면.....
승민, 흠칫!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대진 형? 왜 그래?

승민 아, 아냐..... 무식하게 케익칼도 없어.

대진 어? 어... 미안해....

이때 푹-푹-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오는 50대 초반의 낯선 남자....

대진 누구...?

동부서 강력반에 김민기 반장입니다.

117. 승민의 방 (안/낮)

테이블에 승민과 마주 앉은 동부서 강력반 형사, 사진 한 장을 꺼내 놓는다.
사진 속에는 변호사 한준수(썸34 참조)가 정연의 뺨에 뽀뽀를 하려다 이를
장난스럽게 피하는 정연 때문에 앵글이 약간 벗어난 다정스런 모습이 찍혀 있다.
승민, 물끄러미 건네받은 사진을 쳐다본다.

김반장 6개월 전 좀 실종됐는데 지난 주 재건축 단지에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잠깐 망설이다가) 돌아가신 아내 분과 무척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승민

김반장 혹시.. (말을 아낀다) 두 사람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까?

승민, 건조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동부서 형사를 쳐다본다.

승민 아뇨. 아내는...절 사랑했습니다. (단호) 아니 아직도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반장 (난감한)

118. 화장실 (안/낮)

썩아- 수도꼭지가 틀어져 세면대위로 마구 물이 흐르고 있다. 누군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겹쳐 들린다. 화면 이동하면, 세면대 밑 승민이 쪼그려 앉아 오열하고 있다.
이때 울리는 승민의 핸드폰... 승민, 벌건 얼굴로 천천히 핸드폰을 받는다.

승민 (애써 감정 추스리며) 예! 허대표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릴려고 그랬는데...

승민, 슬쩍 거울보며 얼굴 추스르고 이내 화장실을 나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다.
(음악 천천히 인)

승민 이번주에 윤진아하고 감독님 미팅한번 잡으시죠. 네....

도로, 어떤 차안, 누군가, 시선이 승민을 주시하고 있다.
동부서 김민기 반장이다. 김반장의 핸드폰이 울린다.

김반장 (나직이) ...오승민이 불임이었다? 그럼 뱃속의 애기는 뭐야?

김반장. 에어컨 옆 꽂아둔 정연과 한준수의 불륜 사진 쪽으로 잠시 시선....
이내 멀찍이 걸어가는 승민의 뒤를 따라 천천히 차를 이동한다. (서정적인 음악
시작) 화면, 김반장의 차를 따라 더욱 빠지면 거리에는 핸드폰을 들고 분주히
지나가는 무수한 사람들로 넘쳐난다. 엔딩 크레딧.....

(끝)